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받는다

개정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월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
7대 취약시설 현장점검 강화...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 연장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경제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홍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7대 취약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이다.

또한 수도권 소재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 방역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및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1~14일)을 25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일환이다.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1일 74명씩)해 서울·경기·인천·부산의 74개 시·군·구에 각 1개 조씩 투입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의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점검, 종사자 등 선제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최광수/기자

대한민국정부

7월12일~25일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수칙 확인하세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 백신접종지도 인원 제한수 포함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불인정 * 동거가족 이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및 임종 모임을 예외 인정
행사·집회	수도권 행사·집회 금지 (1인 시위 제외)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 참여만 허용 (만 49인까지)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 가능 단,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 금지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7,14일부제)
종교시설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식사 활동 금지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 등 권고
기타	스포츠 관람 등 무관중 경기만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숙박시설 주안 파티 등 행사 금지 등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관련 브리핑 7.9.

경기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산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 33편 선정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조직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행위원장 정성진)가 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창작자와 산업관계자 간 교류를 위해 선정한 '2021 DMZ인더스트리 공식 프로젝트' 33편을 공개했다.

DMZ인더스트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019년부터 DMZ인더스트리를 출범해 영화제의 제작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고 국내의 창작자를 위한 다큐멘터리 종합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DMZ인더스트리는 기획 및 제작 단계에 있는 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창작자가 작품을 완성해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품 완성을 위한 총 제작 지원금 규모를 기존 3억5,000만원에 5억원으로 상향하고, 접수 분야를 세분화해 창작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선보였다. 선정작은 영화제 기간 중 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피칭(작품의 투자 배급 등을 유치하기 위해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 등의 기회도 얻는다.

이러한 이점 속에서 올해 38개국 200여편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접수됐고,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심사위원단의 심사 끝에 총 19개국 33편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작으로 결정됐다. 특히 선정작 33편 중 21편이 신진감독의 작품이며, 절반 이

상의 작품은 여성감독의 작품으로 각각 채워졌다. 루마니아, 이라크, 요르단 등의 작품도 선정자에 이름을 올려 지역적 다양성까지 확보했다.

주요 작품을 보면 ▲기획개발펀드(제작 30% 미만 자금 지원) 부문에서는 임연정 감독의 '나를 찍어줘, 언니' 등 10편 ▲제작펀드(제작 30~70% 자금 지원) 부문에서는 중국 우위에 감독의 '엄마는 챔피언' 등 3편 ▲후반작업지원펀드(영화제 출품작 자금 지원) 부문에서는 고한별 감독의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등 2편 ▲프로덕션 피치(제작 30~70% 비즈니스 기회) 부문에서는 인도 투샤르 마드하브 감독의 '장가 짐 삼의 죽음' 등 13편 ▲리프컷 프레젠테이션(후반 작업 이상 비즈니스 기회) 부문에서는 일본 후가 후미아리 감독의 '미스핏 코미디언' 등 5편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자금 마련을 위해 7월 14일부터 2주간 장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큐베이팅펀드(다큐멘터리 소재 발굴의 조사 활동 단계 지원) 공모도 진행한다"며 "DMZ인더스트리는 앞으로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발굴과 창작자 지원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고양·과주시 일대에서 개최된다. 2021 DMZ인더스트리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고양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전순희/기자



한국 국민 정부신뢰도 45%로 OECD 20위...역대 최고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간) OECD가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신뢰도를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 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

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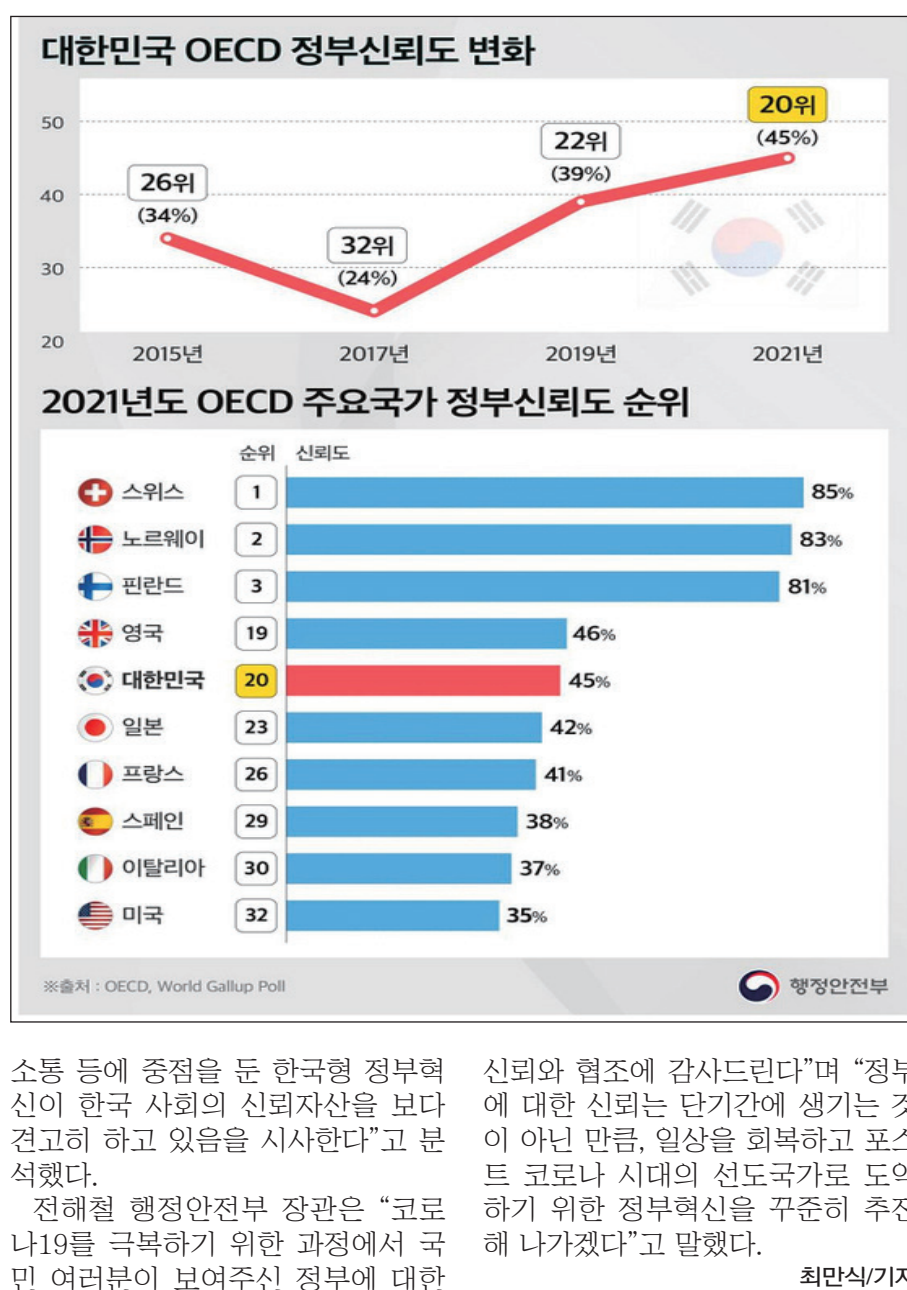
특히,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0.7%이고, 1위는 85%의 정부신뢰도를 보인 스위스로 나타났다. 2위는 노르웨이(83%), 3위는 핀란드(81%)이며 영국(46%)이 우리보다 한단계 앞선 19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



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포토뉴스

성주군,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성주에서 힐링여행



국립공원 가야산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가야산국립공원에서 '숲에서 몸집 받침'이라는 주제로 명상, 요가, 맨발걷기 등 성주야산 숲체험 치유프로그램과 해인사 사찰문화탐방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해인사와 가야산국립공원 MOU 체결 후 처음 운영되는 연계 관광프로그램으로 가야산 일대 관광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관광 운영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나우성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 5천원(인당)은 지역상품권을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여행이 본격화되고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성주 맞춤형 특화 생태관광상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지역관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이용호 의원,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 대표발의!



앞으로 농어촌과 산간벽지 등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운행만큼은 보장하는 개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8일,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하여금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함에 따른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의 경우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비 상승이 심해지고,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나 폐선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농어촌이나 산

간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이다. 특히나 이들 지역은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도심에 비해 더 많은게 현실”이라면서,

“운송사업자 역시 여객사업 상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하여 노선 폐지나 감차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연료하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산간벽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여객 수 없이 노선폐지나 감차를 해야 한다면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고, 운송사업자도 해당 노선에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을 함으로써 농어촌과 산간벽지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향후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 수익성을 이유로 운송사업자의 노선폐지나 감차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운송사업자가 함께 농어촌과 산간벽지 주민의 교통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강득구 의원, '대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지금도 늦었다'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 14시 교육시설안전전원 회의실에서, 정부의 대학정책을 성찰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학정책의 패러다임을 논의한 「대학정책의 패러다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강민정 국회의원, 한국대학교육회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허장수 충남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의 기조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정부 대학정책 반성과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이라는 주제에서 윤지관 교수는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25년간의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으로 서열과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하고, 탈근대 포스트모더니즘에 맞는 새로운 대학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미래형 대학 공유 협력 모델, 특성화 추진, 특성별 변별적 기준의 대학 평가 및 지역 사회 공영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박정원 상지대 교수(전국교수노조 위원장)는 '대학교육의 국가책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주제에서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대학교육비의 68%를 국가가 부담하고 개인이 29%를 내는 반면, 한국은 사부담이 62%, 공공부담이 38%임을 언급했다.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통해 관중된 대학재정지원과 학벌체제를 타파하고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의 예산 46조원이나 일자리 관할 예산 30조원 중 10조원만 활용해도 대학 무상교육 예산이 확보됨을 지적했다.

세 번째 발표자였던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대학정책 패러다임의 혁신과 평생교육'의 주제 하에 건물로서의 학교가 언제까지 의미가 있을지, 고령사회와 성인 학습자라는 새로운 인구가 나타난 시대에 어떻게 학습을 관리할 것인지, 탈라진 시대에 탈라진 지식의 습득, 보존, 가공, 생산의 양상과 대학 논의의 증폭 수단이 아닌 평생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번째 발표를 맡은 김재형 조선대 교수(호남희망포럼 상임대표)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학정책'이라는 주제로 지방 소멸 및 지방대의 위기를 설명하고, 대학은 상품이 아닌 공공재이므로, 기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 사립대의 공영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수명 교원대 교수는 차기 정부의 대학 개혁 정책으로 서울 주요 대학들과 비수도권대학들의 상호경쟁 구조 창출, 국가 사업이나 정책이 아니라 대학

의 기본 역량을 충실히 하고 국가의 재정확대와 국공립 체제의 골조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대학에 대한 공격 개입의 강화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와 국내 경쟁에서 탈피한 국제 경쟁의 필요성, 획일적인 지원보다 대학들의 특성화 촉진과 차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대학정책 패러다임 전환 관련 국립대학법과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체제 현실과 대책을 비교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마스터플랜처럼,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을 구상할 위원회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송근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과장은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조율하기란 쉽지 않으나, 큰 틀에서 공유 연계 협력과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급과 순천대와 전남대의 공동학과 운영을 예로 들었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학이 위기라는 화두가 부상한 이후,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도 늦었다.”고 지적하고, “단지, 대학의 존재에 관한 사안뿐만 아니라 임시교육 문제, 지역불균형 문제 등 대학과 연결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쇠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창의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줌(ZOOM) 및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하였으며, 유튜브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최정무/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발의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와 지속적 관리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와 관리책임자를 부서의 장 등으로 명확히 지칭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조항도 담았다.

방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도민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고정화/기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450만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8일 목요일에 서울 여의도 마리아 컨벤션센터에서 "450만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고양시의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수원시의 김진표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용인시의 정준숙 의원, 창원시의 최형두 의원이 함께했으며, 이 자리는 내년부터 출범하는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과 개별법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

다. 1부 간담회에서는 대도시 특례시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촉구와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부에서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안건 상정과 4개 특례시 시장연구원에서 추진한 특례시 이양 요구사무 중심으로 직접 합성 판단 및 비용추계 등 공동연구역 최종보고회로 진행되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허성무 대표회장은 "향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하여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와 4개시 국회의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도내 9남매 다둥이 가정 격려 방문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장규석·이종호 부의장, 손태영 도의원, 남택욱 도의원은 8일 의령군 다둥이 가정을 방문하여 다자녀 가정의 육아와 교육의 어려움을 듣고 박성용·이계정씨 부부를 격려했다.경남 의령군에 살고 있는 박성용(48)·이계정(46)씨 부부가 지난 15일 아홉 번째(5남 4녀) 건강한 아이(아들)를 출산하여 도내 인구수가 가장 적은 의령군에 큰 경사로 받아들여지고, 많은 지방정부가 농촌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감소되는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이

번 아홉 번째 자녀 출산에 지역사회와 따뜻한 관심과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김하용 의장은 “경남도 출산율이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상남도의 각종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많은 도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함께 축하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농협(본부장 윤해진)에서도 아홉 번째 아이 출산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최광용/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전라남도의회, 도민 행복을 위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다짐

8일 전라남도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

전라남도의회가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도민 중심의 자치분권 시대 실현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전라남도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8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은 김한중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김영록 도지사, 장석웅 도교육감, 역대 의장, 시군회의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영상에 이어 축하메시지 영상 시청,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의회의 역사를 그린 기념영상은 1952년 초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의 근간이 되어온 의회의 의정활동과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공감 의정 실천 의지를 다지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의원, 그리고 상인과 청년 등 여러 도민들이 축하영상을 통해 전라남도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했고, 해외교류 의회인 일본 고치현과 사가현, 베트남 빈푹성에서 축하 메시지 영상을 중국 저장성, 장시성, 산시성에서는 축하 서한을 보내왔

다.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은 지방의회 부활 이후 의회의 발전에 공헌한 국장급, 이완식 전 의장 등이 감사패를 수상했고, 주민자치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도민과 의회 운영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 시상식이 이어졌다.

김한중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1952년 첫걸음을 뗀 지방의회는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되는 굴곡을 겪기도 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1991년 부활한 이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전라남도의회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현안 해결과 도민 권익 신장, 집행부 감시·견제 등의 활동을 통해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재정분권 확대·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



라남도의회는 부활 이래 지난 30년 동안 도민의 든든한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의회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장석웅 도교육감도 "지방의회 부활을 통한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으로 행정과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주민의 정책 참여가 강화되었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의와 협력을 통해 교육자치 완성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으며, 행

사 실황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기념식과는 별개로 그동안의 의회 활동을 화보로 통해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 사진전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개최한다.

또 의정사의 체계적 관리와 의정 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앞으로 의회 발전방안 제시 등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30년사 연구용역'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는 책자로 편집 발간하여 의정사료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안/기자

경기도 이재명 “부동산시장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 늘려야”

6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공론화를 위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토론회'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사실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이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는 자기가 내는 면치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

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투기·축재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 논의를 위한 자리로 별도 방청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명 교수는 부동산시장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론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우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열린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비롯해 (가칭)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김상호 하남시장, “팔당댐, 청소년 견학 등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

김시장, SNS에 “팔당댐 통해 환경보호 중요성 알리고, 청소년 견학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 밝혀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8일 열린 '팔당댐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 후 SNS를 통해, 팔당댐을 청소년 견학 등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년여에 걸친 팔당댐 경관개선 사업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팔당수력발전소 현장에서 개최한 '팔당댐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조광한 남양주시장, 정재한 한수원 사장, 팔당수력발전소 김중식 소장 그리고 하남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각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팔당수력발전소는 1973년 준공된 국내 최초의 지하차 벨브형 발전설비를 갖춘 친환경 에너지 발전시설”이라며, “온실가스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발전이 여전히 국내 전력생산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소중한 발전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기치 못한 홍수로부터 하남·남양주·서울을 지키고, 서울과 경기 일원 식수와 용수를 공

급하고 있다”며,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남양주와 하남은 황포돛배를 이용해 교류를 이어왔고, 현재는 팔당댐 관리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팔당댐이 물리적 거리를 넘어 마음까지 이어주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 당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해 1000만원을 후원한 한수원 정재환 대표에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김 시장은 “정 대표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아동 대상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기쁨지역아동센터와 온누리지역아동센터에 차량을 지원했고, 어린이통학차량 기준에 맞도록 통학차량을 개조하는 비용 지원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시가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교육도시 하남' 정책과 연계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팔당댐을 활용해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이 깨우쳐 준 환경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교육도시로 가는 과정에 청소년 견학 등 교육의 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강호/기자



논산시, 시민의 힘으로! 자치분권 1번지 논산



논산시의 행정조직도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시장 위에 논산시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고, 당연히 그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해온 황명선 논산시장의 확고한 믿음이 영보되는 단면이다. “더 많은 권한을 ‘더 많은 참여’로 변화시킨 황명선 논산시장의 노력은 마을 주민들의 주인의식, 자치역량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자치분권 1번지 논산’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다.

시민 삶의 현장과 더욱 가까이에 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 온 황 시장은 ‘타운홀미팅’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전 시민적 참여를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각종 사업 및 아이디어들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고, 시민의 손으로 논산의 미래를 빛나게 하기 시작했다. 그 중 황 시장의 과감한 실행력이 가장 돋보였던 것은 바로 ‘읍면동장시민주천공모제’이다. ‘읍면동장시민주천공모제’는 기존 인사 관행과 고유권한 행사의 영역을 완전히 깨버리고, 시민이 직접 투표 하여 마을을 이끌 읍·면·동장을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선출된 공직자와 주민들은 서로 간 신뢰와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더 나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자치와 분권의 진정한 의미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정책을 설계한 노력이 더 큰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한 것이다. 지난 2019년 논산시는 관내 모든 마을에 ‘마을자치회’를 마련해냈다. 공동체 생활, 안전, 교육, 문화, 환경 등 넓은 영역에서 주민 간 의견을 나누고 갈등을 조정하는 마을 단위의 협의체가 논산의 어느 곳에서든 숨 쉬고 있는 셈이다. 같은 해 전국

최초로 열린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는 논산시민이 가꾸 온 자치역량이 한곳에서 꽃핀 화랑점점의 순간이라 할 수 있었다. 각 마을자치회는 마을마다의 특성에 맞게 실행해 온 다양한 기획과 사업들을 공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며 진정한 자치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황 시장은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해왔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 비로소 시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이끄는 자치분권의 주체로 나설 수 있다. 다양한 자치제도 수립을 선도하고 참여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 민주시민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지탱할 것이다. 황 시장이 꿈꾸는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뜻과 길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나아가 황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과 기초지방정부의 지역혁신을 이끄는 전도사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기초지방정부의 현실과 미래에 직결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연대와 동참을 이끌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과제들을 충실히 해결해가고 있다. 온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선두에 황 시장이 있다.

김원호/기자

인천시의회,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임동주)는 8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그 의미’, ‘강화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시민인식 조사’ 등을 주제로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하대학교 최중기 명예교수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계숙 팀장이 각각 좌장과 사회를 맡았으며, 문경오 한국갯벌세계유산추진단 사무국장장과 유승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회에는 인천시의회 노태순(산업경제위원회) 의원, 지역문화네트워킹 박상문 공동대표, 안양대학교 류종성(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강화도시민연대 김순래 생대보전위원장, 인천일보 이순민 기자, 장정구 인천시환경특활시추진단장 등이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발제를 맡은 문경오 사무국장은 한국의 세계자연유산이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단 한 곳밖에 없음을 강조한 후 “갯벌의 생물 서식지로서의 역

할과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등재를 위한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분 사무처장은 강화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강화군민 여론조사 보고서를 통해 강화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관련 인지도, 등재 찬반율, 찬성 및 반대 이유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노태순 의원은 “이전 등재 범위에서 인천 갯벌이 배제된 사유가 지역 주민의 동의 부족인 만큼 갯벌과 직접 관련된 지역 주민들이 등재를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비지정 용암동굴 사적처럼 훼손에 대한 연구조사 등 대책을 제시해야 실효성 있는 등재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임동주 위원장은 “강화 등 인천의 갯벌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생 가능한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며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남/기자

청라국제도시, 커넥티드카글로벌메카도약, 본격시동

청라 로봇랜드 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커넥티드카 인증평가센터' 구축 착수

인공지능은 최근, ICT(정보통신기술) 및 자율주행기술 등의 발달로 인한 급격한 자동차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라 로봇랜드 내에 미래차 핵심 무선통신기술 R&D(연구개발)을 선도할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향후 커넥티드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소재·부품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인천시, 한국자동차연구원, 관련기업(인천기업 2개사 포함) 등이 공동 협력해 커넥티드카 핵심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소재·부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해 제품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월 정부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으로 승인됐다.

시는 이 사업에 참여해 개발된 소재·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 수행을 위한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를 청라 로봇랜드 내에 자동차연구원과 함께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 구축에는 국·시비 등 약 290억 원이 투입되며, 시가 2023년 말까지 지상 3층, 건물면적 약 2,900㎡ 규모로 센터를 건립하고, 자동차연구원 커넥티드카 R&D 및 인증평가 등에 필요한 시험·인증 장비와 인증평가 시스템을 센터 내에 구축해 운영하게 된다.

자동차연구원은 국내 대표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분과에 소속되어 최근 차량용 무선통신 분야에 대한 리더로서 글로벌 표준을 제안한 상태로, 안전 심사를 거쳐 2024년경 ISO 국제표준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라 로봇랜드 내 구축되는 커넥티드카 인증평가센터는 ISO 국제표준에 대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초 공공용 커

넥티드(Connected) 무선통신 인증평가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시는 센터 기능 확대를 위한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엔 시행될 산업부 주관 공모사업 유치에 준비 중으로, 지난 4월 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하여 산업부에 공모과제로 제안한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인증평가시스템 구축'과제가 채택되어, 공모사업 유치가 유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모에 선정되면 자동차연구원을 통해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V2X(Vehicle to Everything, 차량과 모든 사물 간 무선통신 연결) 기술 등의 인증평가 시스템을 센터 내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통해 인천 지역 내 총 1,862억 원의 투자와 약 2,415명의 직접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커넥티드카 핵심 R&D 엔지니어 유치, 자동차연구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인한 관련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 집적화 등의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로봇랜드를 로봇과 미래자동차 융합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커넥티드카 초기시장을 인천이 선점하여 미래차 핵심 무선통신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커넥티드카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통해 청라국제도시가 커넥티드카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양방향 무선통신이 가능한 미래자동차로 다른 차량은 물론 모든 사물 간 통신 연결이 가능해 안전 주행 정보 등 각종 운전자 편의정보가 제공되며, 이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로도 사용된다.

커넥티드카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127조원에서 2030년 905조원으로, 국내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31조원으로 예측되고 있어, 커넥티드카 소재·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세계 완성차 업체들도 향후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예측하고 커넥티드카 개발 및 상용화에 앞다퉀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의 주요 국가들도 커넥티드카 무선통신기술에 대한 법규 정비와 의무 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커넥티드카 소재·부품에 대한 인증평가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는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커넥티드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커넥티드카를 포함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커넥티드카를 미래차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연구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커넥티드카 R&D 핵심 인프라를 갖추게 될 인천의 정책 수혜가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인증평가센터 구축사업의 공동 추진과 인천시 미래차 육성 발전 협력을 위해 자동차연구원과 인천분원 유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연구원과 함께 인증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자동차연구원 인천분원을 센터 내에 개소해 운영하게 되며, 인천시 미래차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기술지원 및 기업지원, 신규사업 기획, 투자기업 유치 등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자동차연구원은 인천시와의 사업 협력 추진을 위해 최근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인근에 인천분원(커넥티드 융합 연구센터)을 임시 개소했으며, 센터 운영이 시작되는 2024년에 50명 규모로 인천분원을 정식 개소하고, 2030년까지 200명 규모의 본부급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연구원은 국내 유일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으로 총남 천안에 본원을 두고 총 13개 본부, 49실·센터, 560여명의 전문 연구인력을 보유한 산업부 인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국가 미래차 R&D 및 산업정책 기획 등을 주도하고 있는 미래차 기술개발의 혁신 주체로 평가받고 있다.

정원선 자동차연구원 커넥티드 융합연구센터장은 "커넥티드카 인증평가센터는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유적 경쟁 속에서 인천에 구축하게 되는 것으로, 센터 구축을 계기로 LG전자, SK텔레콤, 카



카오모빌리티 등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력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커넥티드카 V2X 무선통신 R&D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인천분원을 미래차 커넥티비티(Connectivity) 산업 혁신 거점으로 특화하고, 인천이 커넥티드카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자동차연구원 인천분원 유치를 계기로 자동차연구원과 인천TP를 중심으로 인천 미래차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근 시장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위주 인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고 인천 자동차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준성 시 미래산업과장은 "인증평가센터 구축사업은 국제표준에 적합한 커넥티드카 핵심 R&D 인프라가 청라 로봇랜드에 구축되고,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자동차연구원을 유치해, 인천이 관련 산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최근 커넥티드카를 미래차 핵심 산업으로 주목하고 관련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핵심 R&D 시설을 기반으로 인천의 정책수혜가 예상되므로 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사업들을 지속 발굴해, 청라국제도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커넥티드카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영등포구, 2021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

영등포구가 지난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를 매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와 통합하여 이루어졌으며,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 구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지역 교육청, 학교 연계 청소년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교육 내용의 적정성 등 6개 분야에 걸쳐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심사했다.

2021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곳만 선정되었다. 특히 영등포구는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서울시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과 함께 '사회적경제 친화도시'를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현일/기자



성북구, 코로나19 방역활동 앞장 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표창 수여

서울 성북구가 7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어르신들께 헌신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 인원 참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수상의 주인공은 성북구 관내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로 시설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34명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활동과 평소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살핀 이들의 헌신을 기리고 응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수여식에 참석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했다. 이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누구 보다 고단한 분들이 시설종사자라는 것을 잘 안다"라고 격려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을 보태 주신 덕분에 행정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수 있었고, 코로나19 종식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강성원/기자

용산구, 아동청소년 사회성증진을 위한 대국민 공개강좌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위태롭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였다.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크겠지만 우선은 아이들에게 생명존중, 분노조절, 사회성 증진 등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 용산구가 '아이들이 사회를 만날 때'란 제목으로 오는 12일 '아동청소년 사회성증진을 위한 대국민 공개강좌'를 연다.

대상은 아동청소년들의 부모다. 성장기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높이고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 역할을 제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수업은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1시간 30분 간 용산구청 유튜브로 진행되는 강의는 양용준 오늘날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이 맡는다.

양 원장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은혜·운세·누가병원 진료과장 및 김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 교수와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다.

병상인지치료, 정신분석, 직무스트레스 클리닉, 소아청소년·성인남녀 클리닉 등을 운영한다. 강의는 '사회성이 싹트다 - 부모와 아이의 마음이 만나다', '사회성이 꽃피다 - 가장 소중한 너 나라는 존재' 2부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성장한 용산구청장은 "용산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대국민 강좌를 준비했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웃과 더불어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구가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공개강좌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음주 폐해 예방사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심리지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신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아이들이 사회를 만날 때

사회성이 뛰어난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2021 아동청소년정신건강캠페인 대국민 공개강좌

<p>강의1 사회성이 싹트다 부모와 아이의 마음이 만나다</p>	<p>강사 양용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원</p>
<p>강의2 사회성이 꽃피다 가장 소중한 너라는 존재</p>	<p>시간 2021.7.12.(월) 11:30-13:00</p>
<p>문의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199-8140, 8340</p>	<p>참가 "용산구청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한 실시간 질문가능</p>

주최 용산구보건소 정신보건팀

협찬 대안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용산구보건소

마포구, 경력단절여성성을 위한 여성 취·창업특강 개최

8일, 마포구청은 취·창업에 관심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취업난이 심화되었다. 특히,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특강은 기후 위기와 코로나19상황에서 변화된 고용환경을 알아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 보는 관점으로 진행되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여성 취·창업 특강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상순/기자



강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17억원 부과

강동구가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417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비주거용건축물, 선박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분이 부과되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1년도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신설된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여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지서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 싶은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

을 수 있다.

황규식/기자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납부 기한	7월분 납기 7.16.~8.2, 주택 10, 건축물, 선박 9월분 납기 9.16.~9.30, 주택 10
납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이용 납부 · 은행 및 편의점 등 계좌이체 이용 납부 · 과세내 기한내 은행 계좌이체 이용 납부 · 방문납부(과세내 기한내) 서울특별시내 117개 시·군·구 세무민원실 또는 117개 세무민원센터 · 방문납부(과세내 기한내) 서울특별시내 117개 시·군·구 세무민원실 또는 117개 세무민원센터 · A/S 센터(연세대학교 200여명) 방문 납부 · A/S 센터(연세대학교 200여명) 방문 납부

강동구청 재산세과 ☎ 0213425-5550, 5080, 5570

서울시, 경찰 합동 한강공원 심야시간 음주 금지 집중 단속

市 한강사업본부, 경찰 합동 한강공원 심야시간(22시~익일 02시)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함께 7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치며, 17일간 총 3,67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은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앞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중앙사고수습본부, '21.7.4.)」에 따라 「코로나19 확

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7월 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강공원 내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지난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시작으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과 함께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화군, 2020년 회계연도 살림살이 공개

강화군이 2020 회계연도 한눈에 보는 강화군 살림살이 책자를 발간했다.

군은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 회계 용어로 작성된 각종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알기 쉽도록 도표화해 강화군 전체 예산에 대한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2020년 한해 강화군 살림살이 총수입은 7,8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6억 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6,3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0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지출 분야는 사회복지 1,499억 원(22.86%), 농림해양수산 1,096억 원(17.29%), 국토 및 지역개발 872억 원(13.76%) 등이다.

강화군 총자산은 2조 4,505억 원

이며, 공무원 퇴직금, 국·시비 사업 집행잔액 등이 포함된 부채는 203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 대비 부채가 낮다. 또한, 대규모 재정사업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가 없어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출, 농림해양수산 지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차장·공원·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확충 현황 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강화군 살림살이'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결산서 공개로 재정 운용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광진구, 학원·음식점·노래방 등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 및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화

광진구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학원 및 교습소 진단검사 대상은 관내 강사, 직원, 운전 등 종사자 전원이며,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45일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와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검사는 광진구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으면 된다.

노래방(일반, 코인) 및 PC방 진단검사 대상은 영업주, 근로관계 불문하고 해당 시설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이며,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1일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장소는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중곡·자양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이다.

음식점·카페 진단검사 대상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하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의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 등이다.

검사기간은 20~30대 젊은 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형태에 따

라 4단계로 나눠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1단계는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점을 대상으로, 2단계는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카페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3단계는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식당을 대상으로, 4단계는 8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그 외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대상별로 해당기간 내 우선 검사를 하되, 반드시 8월 2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검사장소는 광진구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

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이며, 검사 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선제검사 대상자 중 해당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틀연속 확진자가 1천명이 넘는 등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다"라며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기에 확진자를 발견하고 선제검사를 실시하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성동구, 중랑천 1.2km 구간 백일홍 꽃길 조성해

서울 성동구에서 이달 중랑천 용비교 하부에서 응봉체육공원까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활짝 핀 백일홍을 만날 수 있다.

구는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방치된 녹지대를 가꾸 다양한 계절 조화를 심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지난 5월 중랑천 산책로 1.2km를 따라 빨강, 노랑, 분홍 등 4개 색상의 백일홍 씨앗을 심어 꽃길을 조성했다.

지난달 말 개화를 시작한 백일홍은 하천을 찾는 구민들에게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오는 9월까지 지속되는 꽃길로 구민들에게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산책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중랑천 용비교~응봉체육공원 구간에 75,000송이로 이루어진 톨립 꽃길을 조성, 5월에는 중랑천 송정교~가람교 1.2km 구간에 유채 꽃길을 조성하여 하천 변을 노랗게 물들였다.

지난달 진행된 '여름철 하천 휴식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용비교부터 살곶이정까지의 구간에 계절 조화를 식재하고 꽃화분을 배치, 그들이 부족한 공간에 파라솔 및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이 아름다운 꽃길을 통해 잠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침수피해 예방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추진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그동안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입어 온 구월3동 일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구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총 143억 원(국·시비 108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월3동 구월지구대 일원 지상어린이공원 지하에 우수저류조(11,500t)를 설치하며, 오는 8월 착공해 내년 우기철 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그간의 사업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구는 기존 지상어린이공원 하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의 노후된 공원시설을 정비하면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도시미관 개선, 주민들의 건강, 휴양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호 구청장은 "구월3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우기철 침수피해를 예방하겠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민과 함께하는 남동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염태영 수원시장, “보건복지부는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 수준으로 높여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장협의회 임의회’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서울시·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며 “보건복지부는 기본 재산액 기준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 등 3개 그룹으로만 분류돼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된다. 인구는 광역시급이지만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염태영 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6월 29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참석했다.



최정근기자

포천시,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지정 '사업순항'

포천시는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지정과 관련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9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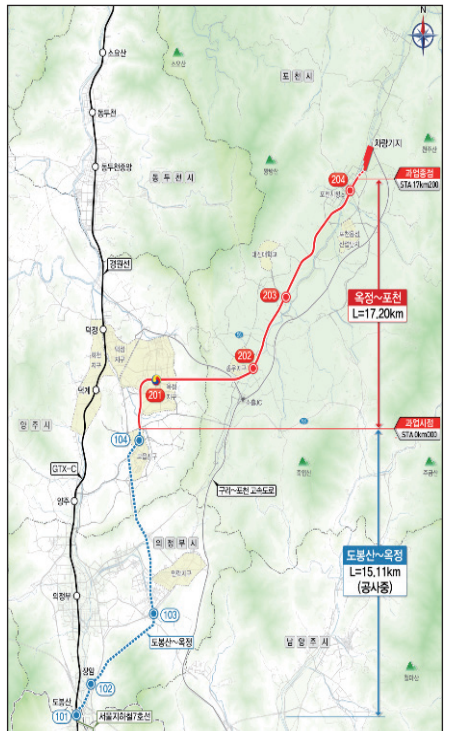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지정은 지난해부터 경기도와 포천시가 함께 광역철도 지정요건 분석 및 철도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루어낸 성과다.

옥정-포천선이 광역철도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 대비 10%의 국비 지원은 물론 도비도 지원받게 되어 포천시는 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시 예산 약 1,70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연장 17.2km, 총사업비는 1조 1,76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올해 2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이후 현재는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광역철도 지정으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당초 계획대로 2028년에는 포천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이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

이천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천시장, 부시장, 기업환경국장을 비롯해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관련 부서 공무원,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2020.3.27.일자로 「이천시 노동자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에 기여하고자 노동분야 정부·시민·사용자단체 등에서 참여하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5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경과, 용역수행기관인 국립한경대 산학협력단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발표, 그리고 위원 및 시민들의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국립한경대 산학협력단은 이천시의 노동정책 비전을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 이천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증진과 일자리 복지 실현을 들었다.

4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16개 세부과제도 제시됐으며, 노동권 보호기반 구축, 취약 계층 노동권 보



호,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노사 상생의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았다.

국립한경대 산학협력단의 기본계획안 발표에 이어 위원 및 시민들은 여러 의견을 내놓았으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염태준 이천시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한 연구용역은 굉장히 중요하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과 직결되는 만큼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더욱더 절실함을 느낀다”면서 “최종보고회를 기초하여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천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부서간 실무협의를 거쳐 용역 결과를 보완하고,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올해 8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2021년 의왕형 특화 시니어일자리사업 활동보고회 개최

의왕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상돈 시장, 시·도의원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의왕형 특화 시니어일자리사업 추진경과 및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의왕시니어클럽과 함께 베이비부머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을 위한 ‘의왕형 특화 시니어일자리사업’으로 4개의 매니저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년 세대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다.

△치매예방관련 콘텐츠제공과 스마트기기 교육을 위한 스마트돌봄 매니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온라인학습 매니저 △이르신들의 맞춤형 운동과 놀이 활동을 위한 시니어액티브 매니저 △장애인의 직무능력향상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무지원 매니저 등 4개의 매니저 사업은 의왕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되어 수혜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날 활동보고회는 의왕형 특화 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참여자들의 활동영상 시청, 4개 매니저 사업단별 대표자 활동보고가 이어졌으며, 이날 참여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원종근기자

성남시, 성남역사박물관 ‘팝업뮤지엄’ 명칭 선호도 조사 투표 실시

성남시는 옛 성남제1공단 부지에 건립 중인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박물관 교육동을 성남역사박물관 팝업뮤지엄으로 우선 조성하기로 하면서 시민 선호도 조사 투표를 통해 그 명칭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명칭 투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토크광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성남시가 박물관 건립을 위해 운영했던 시민공론장과 시민워킹그룹에서 도출된 키워드들을 토대로 문화기획가들에 의해 총 4개의 명칭안이 만들어졌다.

1안 ‘알(EGG)’, 2안 ‘293공작소(共作所)’, 3안 ‘업(UP)’, 4안 ‘점티엑티브(TXT)’의 4개 명칭안들은 각각 박물관 부지인 성남제1공단의 장소적 상징성을 반영하고 흥미롭고 새로운 공간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성남제1공단에 공장이 위치했던 한국빠이푸드만년필 볼펜(1990년대 제작)을 제공한다.

‘팝업뮤지엄’은 ‘새롭게 생성되어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창’이라는 뜻의 ‘팝업’과 ‘박물관’을 합성한 신조어

다. 성남시는 공립박물관 건립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팝업뮤지엄을 통해 시민들이 모여 박물관 건립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실현할 수 있는 참신하고 새로운 박물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였다.

성남시 팝업뮤지엄은 오는 8월 내부 인테리어와 체험전시 공사 후 선보일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박물관 전시동이 건립되면 성남역사박물관으로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이성윤기자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주민에게 믿음 주는
영양군의의회**

부천시, 조상 땅 찾아주기 '호응' 상반기 1천여 명 혜택

부천시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2021년도 상반기 4천244명이 본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1천135명이 3천553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의 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다.

본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기준 신청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 승계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부천시는 상속인의 재산확인 외에도 파산선고와 관련한 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각종 재산신고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씨:리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거쳐 토지와 집합건물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

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빛나는 스마트하남 조성' 하남시, 공무원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교육

하남시는 지난 6일과 8일 양일간 시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구성요소를 정보통신기술(ICT)로 연계하여 도시관리와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이번 교육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고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강의는 하남시와 연세대학교가 맺은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활성화 협약에 따라 연세대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단 교수진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

트시티 이해를 위한 ▲스마트시티 정책과 현황 ▲스마트시티와 시민참여(리빙랩) 강의에 이어, 분야별 추진사업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후변화와 도시재난안전관리 ▲스마트모빌리티의 이해 등의 과정을 수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빛나는 스마트 하남 조성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이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2025년 완료될 목표로 본격적인 '스마트 하남' 구축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강호/기자

영통구, '22시 이후 공원 내 야간음주 금지' 캠페인 전개



수원시 영통구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야간음주 금지 조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밤 10시 이후 공원 등 야간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이다.

현재 영통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92개소로 구는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주요공원에 홍보현수막을 120개소에 게시하고 지역별 자원봉사대 등 가용인력과 함께 현장계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수막 제작에 참여한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공원 내 야간음주 금지를 비롯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의정부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3억2천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과 5월 1, 2차 사업장 모집 공고에 이어 7월 7일에는 3차 공고를 실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로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된다.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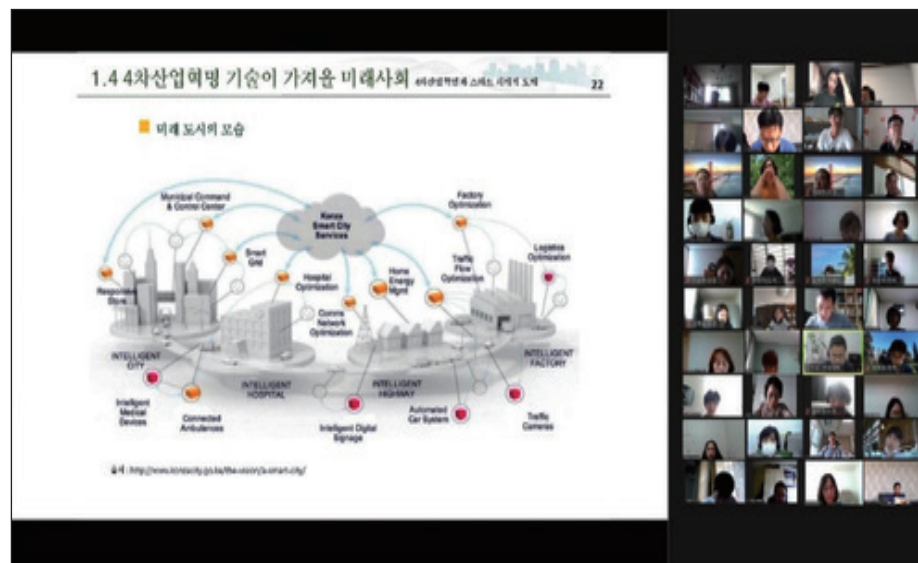
덕트, 후드 등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자부담10%)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로 7월 29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환경지원팀(031-539-5102-5)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장은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구리시,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협의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펼쳐

인승남 구리시장,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환경보호 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라

구리시는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협의회(회장 김병연)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구리방역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210개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위생 마스크, 수저 포장지 등 식사 문화개선 용품을 전달하여, 음식물 낭비를 줄이는 식사 문화개선 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구리시는 8일 구리시청 민원상담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협의회 임원진과 효율적인 캠페인 진행과 의견을 개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병연 회장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통해 환경문제

와 재활용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승남 시장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그린뉴딜 정책과 접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구리시협의회에서는 경로당 방역봉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양주시, 시정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보고회 개최

양주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신임 김종석 부시장 취임을 맞아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정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종석 부시장,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사업 59개, 역점사업 69개 등 총 128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으며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 하는 등 자유로운 분

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발생 및 백신접종 대응 현황,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및 GTX-C 노선 건설, ▲서울-양주간 고속도로 건설, ▲양주역세권 개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생활SOC 복합화, ▲대중교통확대 운영 추진 등이다.

김종석 부시장은 "부서 간 공감

과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제4차 대유행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더 힘써줄 것"을 당부하며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양주시가 명실상부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김천, 일자리·서민경제 활력에 지속 힘모은다

올해 지역화폐 1천억 발행, 290여개 공공일자리 제공, 청년실업 제로 도전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일자리·경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김천사랑상품권 운용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추진과 청년층·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충 사업에 적극 매진하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통해 청정도시 김천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천시는 서민경제 회생에 지속 집중한다.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지역화폐 1천억 발행을 목표로 지난 1회 추경을 통해 총 76억원의 김천사랑상품권 운용 예산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올해 관련 예산 135억원을 투입하여 하반기 경기 회복에 행정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첫째, 지역소비를 진작하고 지역자급의 역외유출을 막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카드형 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중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7월 현재 김천사랑상품권(카드) 판매액이 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률이 95%를 초과하여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시는 2019년 30억원, 2020년 600억원 판매에 이어 올해 1천억원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서민경제 회생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김천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사업과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0억원 규모로 시행중인 특례보증사업은 업체당 2천만원까지, 이자차액을 2년간 3%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2%의 지원 실적을 보이며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8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셋째, 2021년 중앙 및 도단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 1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현재 평화시장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10억원, 2개년도), 평화·황금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사업(5.6억원), 황금시장에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6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평화시장 청년물 조성사업(15억원, 2개년도), 황금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33.9억원, 2개년도)도 예정대로 마무리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이 찾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공공분야 일자리를 확충하고, 청년 실업률을 완화하고 사회적약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각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청년실업률 제로 도전을 목표로 청년의 창업·장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김천시 청년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1社-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청년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및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공근로 등 3개 사업에 117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김천 새희망 일자리사업 등에 170여 명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10월 말까지 5개월 간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취업자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기업체 직무제함을 통하여 취업 준비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하여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넷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관내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섯째, 시민의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기금 20억원을 조성하여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천시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리는 2021년을 대한민국의 그린 전환의 원년으로 삼은 정부의 그린뉴딜 및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제5차 경북도 지역에너지계획에 맞춰 전기사업허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에너지절약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에너지효율개

선사업, 도시가스공급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힘을 쓰고 있다.

첫째, 김천시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마을이나 개별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332개소, 지열 25개소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및 공공분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단독·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202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80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하면 비수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물론 시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경감시켜 에너지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3kW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약 3년 후에는 전기료 절감을 통해 자부담 회수가 가능하며 시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을 토대로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지원, 취약계층 조망기기 교체 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전기사용량 절감으로 복지시설의 운영부담 감소 및 에너지절약문화의 확산도 기대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어느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소상공인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긴급하게 대규모로 추진하였으나, 사실 경기 회복은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장기 과제"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관련사업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며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세기기자

경산시, 영남신학대학교와 '건강증진대학 만들기'업무협약

경산시, 10개 대학중 9개 대학 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사업 참여

경산시는 8일 경산시청 시장실에서 영남신학대학교와 「건강증진대학 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경산시의 영남신학대학교는 대학생과 교직원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학연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영남신학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경산시의 10개 대학중 9번째로 모든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행되는 시기에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이 평생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산시의 목표이다.

한편,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이번 영남신학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9개 대학 9만 8천여 명이 건강증진대학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대학 구성원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건강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군위군 친환경농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토종미꾸리 입식

군위군은 지난 8일 군위군 의흥면 연계2리 미꾸리 쌀 작목반 회원 11명과 마을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꾸리를 논에 입식했다.

이날 김영만 군수도 참석하여 고령화된 농촌 여건에서도 친환경 벼 생산을 위해 논 미꾸리 생태 양식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주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미꾸리 쌀 작목반은 작년 600여평의 논에 흙 파기로 미꾸리 유실방지 및 한여름 사료 섭취를 저하 예방을 위한 논둑 보강, 논둑 주변에 적절한 생육환경을 위한 돌병과 조류,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토종 미꾸리를 입식하여 벼를 재배한다.

이밖에 입식된 미꾸리는 경상북도 토속어류 산업화센터에서 4~5cm 크기의 중간육성 개체로 이번 입식 후 가을까지 키워내면 상품화가 가능하다.

최만식기자



봉화군, '청량산 재산 수박' 7월 8일부터 본격 출하

수박의 고장 봉화군 재산면 시설 하우스에서 탐스러운 빛깔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청량산 재산 수박이 한창 출하되고 있다.

봉화군 재산면 갈산 1리 신중순 씨의 시설 하우스에서 생산된 먹음직스러운 청량산 재산 수박이 7월 8일부터 수박공선출하회를 주축으로 롯데마트,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출하됐다.

출하기간은 7월 말까지이며 19농가, 하우스 260동에서 총 10만 통의 수박이 출하할 예정이다. 이날 출하된 수박은 현지에서 개당(8kg기준) 14,000원에 거래됐다.

청량산 재산 수박은 준고랭지인 해발 400m의 재산면 일대에서 생산돼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나며 높은 당도를 자랑해 전국 수박 애호가들의 인기가 높다.

한반식기자



포항사랑상품권, 이틀 만에 판매점 대부분 완판 진기록 행진!

향후 지류형과 카드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정

포항시가 상반기 포항사랑상품권 1,900억 원 완판 행렬에 이어, 7일부터 실시한 하반기 첫 판매도 불과 2일 만에 500억 원이 거의 완판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앞서 포항시는 상반기 판매 실적으로 정부의 인센티브로 받은 하반기 발행액 1,620억 원을 피서철, 추석명절, 연말 등 3차례 판매계획을 세워 하반기 첫 판매행사를 7일부터 돌입했지만, 하루만에 350억 원이 판매되고, 2일 만에 거의 대부분의 판매점에서 재고를 드러내며, 성공적인 지역사랑의 인기를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

올해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사랑상품권 3,520억 원 발행액 전부를 10% 특별할인 판매해 계획대로, 계속된 불황속에서도 소상공인, 골목시장, 전통시장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2017년부터 포항사랑상품권 누적발행액은 1조2,500억 원을 훌쩍 넘어서며 명실공히 최고의 경기활력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노력에 호응하는 포항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김기현기자

이철우 도지사, 故 백선엽장군 서거 1주년 추모... 한미동맹포럼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9일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 전우회(회장 빈센터 K. 브룩스)에서 주관하는 「故 백선엽 대장 서거 1주기 추모행사」 및 「제10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故 백선엽 장군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동맹의 계기를 만들어 준 다부동전투 현장이 있는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열렸으며, 서욱 국방장관, 민홍철 국회의장, 최경환 장관, 여야 국회의원, 백선기 철곡군수, 폴 라카메라 선임 연합사령관, 월러드 벨레슨 미8군 사령관, 백선희 여사(故 백선엽 장군의 장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다부동 구국용사충혼비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 헌화 및 분향, 묵념의 순서로 추모식을 진행하였으며, 제10회를 맞이하는 한

미동맹포럼은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백남희 여사가 직접 방문하여 「백선엽 장군과 한미동맹」이라 주제로 특별강연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故 백선엽 장군의 영상을 통해 장군을 추모하고, 존 킬렐리, 쉘 슈윙클, BB 벨, 윌터 샤프, 제임스 썸먼, 커디스 스키타로티 등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의 추모 영상이 상영되었다.

포럼에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설득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끈 故 백선엽 장군 서거 1주기를 맞아 장군과 인연이 깊은 칠곡군에서 개최하는 한미동맹 포럼이 매우 뜻깊다"며, "오늘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우호와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김세기기자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10일 '2021 교문학생 페스티벌' 개최

'사제동행 아트쇼'와 '교문학생 가요제 n 댄스페스티벌' 등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은 7월 10일 오후 1시 30분 학생교육문화회관 교문갤러리와 대강당 등지에서 '2021 시즌1 교문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2021 부산교육가족 예술축제'와 연계해 '사제동행 아트쇼' 전시와 '교문학생 가요제 & 댄스페스티벌' 공연으로 진행된다.

'사제동행 아트쇼' 전시는 10일 오후 1시 30분 학생교육문화회관 교문갤러리에서 개막한다.

이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줄탁동시'를 주제로 부산지역 15개 중·고등학교 34팀, 252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해 34점의 설치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작품은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홈페이지 '디지털 갤러리'에서 'VR 전시'로 상시 관람할 수 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교문학생 가요제 & 댄스페스티벌' 공연이 펼쳐진다.

중·고등학생 14팀의 보컬, 밴드, 댄스 무대와 함께 밴드 기린(Band Girin)과 비보이 그룹 BCB(Busan City Breakers)의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모든 오프라인 행사와 공연은 유튜브 채널 '교문TV'로 실시간 생중계한다.

김영진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예술적 꿈과 끼를 발산하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근거 마련 목표

경상남도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운영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도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추진단 사무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역 환경 분석을 통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가능 및 역할 정립 ▲지역 내 환자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통한 환자 진료권 설정 및 병상 규모 추정 ▲유사규모 공공병원 사례 조사를 통한 진료과목 선정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부지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대한 중간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임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 환경 분석 ▲진료권 설정 및 병상규모 추정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설립 타당성 분석 등이다.

경남도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도민, 전문가 등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의료취약지역인 서부경남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이 믿

고 신뢰할 수 있는 서부경남의 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으며, 보건복지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제외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설립 운영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지방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쯤 결정되고, 사업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설계 공모 등을 거쳐 빠르면 2023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양근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울산시, 시내버스 정류소 버스정보단말기 '새단장'

울산시, 1,352개소 코로나19 환경정비

시내버스 정류소 버스정보단말기가 일제정비를 끝내고 깨끗해진 모습으로 버스 승객들을 맞는다.

울산시는 한층 더 깨끗한 화면으로 양질의 버스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정류소내 '버스정보단말기(BIT, Bus Information Terminal) 코로나19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하루 4~5명(총 220여명)이 20~30여 곳의 정류소를 방문해 미세먼지와 매연으로 더러워진 단말기 액정을 물걸레로 닦아냈다.

또한 단말기 내부에 유입된 먼지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에어압프(공기압축기)와 세정용품을 사용해 미세먼지와 찌든 때를 꼼꼼히 처리하

고 주변 거미줄, 불법 광고물 등도 제거했다.

김춘수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환경정비를 통해 연중 무중단 운영, 도로변 설치 등 가혹한 현장 환경으로 가끔 교통정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단말기도 정확한 버스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환경정비·점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을 통해 깨끗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버스정보단말기(BIT, Bus Information Terminal)'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도착 예정시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5년부터 구축된 버스정보



단말기는 현재 3,130개소의 시내버스 정류소 중 43.1%인 1,352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다.

올해의 경우 정류소 41개소 지점에 버스정보단말기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산청군 밤 생산 증대 밤나무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13~16일 차항·오부 제외 9개 읍면 750ha 대상

산청군은 밤 생산 증대와 해충 피해방지를 위해 밤나무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이번 항공방제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에 걸쳐 진환경농업지역인 차항면과 오부면을 제외한 9개 읍면 밤나무 재배지 750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복숭아명나방 등 밤 생산에 결정적인 피해를 주는 종실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제 적기에 헬기를 투입해 방제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클로르플루아주론 유제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게 된다.

이번 방제를 위해 산림청 소형헬기(AS-350) 1대를 투입해 13일 5시 30분부터 12시까지까지 집중 방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은 항공방제 시행 전 마을 안내 방송, 방문 계도 등 충분한 홍보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세부 방제 일정이나 장소 등은 산청군 산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정은 우천이나 안개 등 기상 여건과 헬기 이륙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항공방제로 인해 주민과 양봉, 축산 등 타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방제지역 입산 금지 및 사전 조치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 학부모 리더십 과정' 연수 실시

거창교육지원청은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3일간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 2021 거창 학부모 리더십 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총 1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는 거창 관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경남교육정책 연수, 인문학으로 보는 학부모 리더십 특강, 서클과 회의 운영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 박시동 장학사는 연수에서 경남교육 대전환의 해를 맞아 경남교육의 방향은 무엇이며, 그 중심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강의하여 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성공회대 김찬호 교수는 특강을 통해 아이의 마음 읽기를 위해 학부모

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강조하였고, 경남교육연구정보원 하경남 선생님은 학부모회 구성에서 서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부모 리더십 과정 연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연수 기간에 배운 것으로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른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학부모회 운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용해보고 싶다'고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진용 교육장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참석한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학부모 연수에도 거창 지역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며 거창학부모지원센터에서

는 학부모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유익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장병철기자



의령군, 공약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페스토 특강 개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초청,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 로컬매니페스토" 주제

의령군은 8일 군청 4층 회의실에서 공약사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매니페스토가 추구하는 공약 실천 이행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새로운 미래, 담대한 여정 로컬 매니페스토'라는 주제로 불확실성과 대전환 시대의 도래, 매니페스토의 실체와 민주주의, 미래도시 방향 설정을 위한 제안, 미래도시 의령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으로 강연했다.

강영훈기자



북구, 행안부 공모 선정...자전거도로 안전 개선한다

울산 북구가 행정안전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북구는 울산 지역 구·군 중 유일하게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으며, 구비 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자전거도로 재포장과 사고위험 안내 표지판, 볼라드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북구는 이번 사업에 앞서 상안동 홈플러스 일원 동천 자전거도로 정

비사업도 이달 초 시작했다. 해당 구간은 노후화 등으로 목재데크가 파손돼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주민들의 정비 요청이 이어져 왔다.

북구는 당초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천 자전거도로 전체 구간을 정비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월 초까지 목재데크 정비, 방호벽 데크 철거 및 도색, 목재난간 정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개선사업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그린뉴딜·미래에너지의 중심 'SWEET 2021' 개막

3일간 DJ센터서 개최... 미래 에너지 신기술 홍보·신제품 전시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SWEET 2021'(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가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윤병태 전라남도 정부부지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등 22개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KOTRA),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10일까지 3일간 해상풍력, 수상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ESS), 수소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등 그린뉴딜을 선도할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알리고 신제품이 전시 판매된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KDN, 한전KPS 등 에너지 공기업과 유니스, 비에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대표 기업을 비롯해 245개사가 참여해 550개 부스를 운영한다.

한국전력공사는 홍보관 참가와 더불어 협력업체와 에너지밸리 협약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전력동반성장관'을 지원하며,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6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관'을 지원한다. 한국가스공사는 '한



국가공사 동반성장관'에 참가해 천연가스 등 국내 가스분야의 우수 기술들을 전시한다.

또한 광주시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혁신성장투어'가 동시에 개최된다. 동반위는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중심인 광주에서 '혁신성장투어'를 개최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광주시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혁신성장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며 동반성장 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더불어 혁신성장투어의 부대행사로 개최한 혁신기술 구매상담회에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86개 기업이 수요처로 참여하여, 200여개의 중소기업과 1:1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인도, 이집트, 멕시코 등 24개국이 참가하는 해외수출상담회는 코트라 공동주관으로 전시기간을 포함해 2주간 화상으로 확장 개최되며, 수출희망기업 대상 1대1 수출지원 컨설팅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한국태양광발전학회가 주최하는 글로벌태양광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저명한 태양광 석학들이 대거 참가해 정보를 교류하고, 전남풍력산업

협회·전남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전남풍력산업 육성 포럼'에서는 국내외 해상풍력 현황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에 관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이 밖에도 한국전기연구원원의 '에너지 전환 기업 기술 세미나', 한국광기술원의 '인공지능 연계 에너지 기술 포럼',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한국전기설비규정 설계프로그램 사용법 및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진단 기술 세미나' 등 전문 세미나도 행사 기간에 열린다.

또한 동신대학교 주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과학기술 경진대회',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토대 마련을 위한 세미나' 등 대학생, 지역민을 대상으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용섭 시장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이번 전시회는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정보 공유로 광주시가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남원시, 하수처리 스마트화 가능해진다.

남원시가 최근 '2022년 스마트 하수도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0억 7,400만원 중 국비 20억 3,7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한국판 그린뉴딜 분야 중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 하수도 사업' 2022년 사업 대상지 7곳(부산, 대구, 구리, 평택, 창원, 정읍, 남원)에 남원 하수처리장이 선정, 내년부터 남원하수처리장의 스마트화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남원시는 남원하수처리장의 스마트 하수도 사업 선정을 위해 2020년부터 환경부, 기재부와 전라북도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피력한 결과 마침내 선정의 결실을 거두게 됐다.

스마트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

전 과정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관리 등을 도입하여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보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1995년에 준공, 운영 중인 남원하수처리장은 연중무휴로 남원시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분뇨를 일 50,000톤 처리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안정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우리 남원시는 스마트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 관내 발생하는 하수를 항상 안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남출/기자



장성군 "안산 둘레길 걸으며 황룡강 감상해요"

지난해 수해 입어 한동안 출입 통제... 최근 재해복구 마치고 다시 '주민 품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 장성 황룡강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가 다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다.

장성군은 8일, 장성을 기산리 안산에 둘레길을 개통했다고 전했다.

안산은 기산리 일원에 자리잡은 야트막한 산이다.

장성군은 작년 6월, 장성제일교회 앞에서부터 석송대 주변까지 이어지는 데크길을 안산에 조성했다.

숲길 따라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무거웠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또 전망대에 이르면 탁 트인 황룡강의 전경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30년 만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어 한동안 출입이 통제되고 말았다.

이후 장성군은 국·도비 포함 2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수렴, 최근 공사를 마치고 재개통했다.

군 관계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앵커를 사용해 지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암반 위에 데크길을 설치하는 등 안전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군은 복구 작업과 함께 둘레길의 규모도 확장했다.

기존 440m에서 500m까지 데크길을 늘려 걷는 즐거움을 더했다.

또 곳곳에 벤치를 설치해, 방문자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가까운 곳에는 석송대도 있다.석송대는 성인 5~6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바위로, 과거 석탄 이기남 선생과 송강 정철 선생이 시를 짓고 학문을 논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명은 두 학자의 호에서 유래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기산리 안산 둘레길 재해복구를 조속히 마치고, 다시 군민 여러분께 개방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추후 인공폭포와 야간 조명을 설치해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현재 황룡면 방면 안산 둘레길 하단부에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있다.

완공은 오는 9월 무렵으로 예상된다.

오홍곤/기자

목포소방서,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목포소방서는 소방관들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매주 화, 목요일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외부 전문상담사와 소방서 보건안전담당자가 함께 119안전센터와 지역대를 방문하여 심리 안정을 위한 테라피 클리닉과 유리병 안에서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테라리움 만들기를 실시한다.

또한 교대 근무로 인해 깊은 잠을 못 자는 등 수면장애가 있는 직원들에게 편안한 수면을 위한 호흡법과 배개 선정법 등을 교육한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박원국 서장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한 마음과 몸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며 직원들의 마음건강과 복지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전라북도-민주당-대학 전북형 뉴딜 업무협약

(협약 참여기관)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도내 7개 대학

전북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내 대학이 맞손을 맺었다.

전북도는 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주당 전라북도당 및 도내 7개 대학과 함께 '도-당-학 전북형 뉴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형 뉴딜의 실질적인 사업발굴과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도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군산대 박병선 총장, 군장대 이계철 총장, 우석대 남천형 총장, 원광대 박맹수 총장, 전북대 김동원 총장, 전주비전대 홍순직 총장, 전주대 류두현 부총장이 참석하였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담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는 2025년까지 5년간의 중

합계획을 토대로 사업별 성과지표에 대한 분기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상황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분기별 실행계획을 수립·보완하고 있다.

실행계획을 통해 신규사업의 논리 보강과 추가 사업발굴, 2022년 국가 예산 확보대상 사업 및 공모사업 선제 대응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전북도의 특화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를 통한 실행력을 높이는 등 전북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 전북형 뉴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행정·제도적 지원, ▲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으로 구성되었다.

전북도는 이날 맺은 협약을 발판 삼아 정치권, 도내 대학과 함께 전북형 뉴딜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 등 내실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우리 전북만의

특화된 사업발굴과 발굴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대학과의 힘을 합쳐 성공적인 전북형 뉴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송일/기자



진안군, 산림청과 산림치유원 주민설명회 개최

진안군과 산림청은 9일 백운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장,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지리산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실시설계 및 시공 적격자 선정 전에 사업 현황과 산림치유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 앞서 진안군은 지난 7일 백운 기관단체장 회의에 참석하여 산림치유원 조성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일차로 장출, 지역 농·임산물 납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9일 설명회에서도 고용과 농·임산물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예견희 산림치유원 조성T/F팀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지역연계강화사업과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산림치유원과 더불어 인공재, 데미샘휴양림 등 지역 산림자원을 연계한 진안고원 치유·힐링 특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철/기자

제8대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

제8대 함평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소통하는 강한 노조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8대 함평군 공무원 노조의 정안식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92%라는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김형모 함평군의회 의장, 석현

정 공노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조합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정안식 위원장은 소통하는 강한 노조를 위해 조합원 후생복지 증진, 공정한 인사 감시 역할,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기석/기자



완주군 유동인구 14개 시군 중 2위...상권 활성화 긍정요인

완주군 주말 유입인구 749명
유출인구는 678명 등 유입 초과 현상

완주군을 드나드는 유동인구가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시를 이어 2위를 기록, 지역상권 활성화의 긍정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9일 전북연구원 '전북 체류인구 활성화 방안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통계청 빅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전북 유동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으로 유입되는 주중 유입인구는 전체 5,765명이었으며, 주말 유입인구는 6,09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전주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주중에 2,734명, 주말엔 2,6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완주군 유입 인구가 주중 781명, 주말 749명으로 2위에 랭크됐다.

익산시의 주중(461명)이나 주말(619명) 유입인구가 3위를 마크했으며, 군산시와 김제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현상은 유출인구에서도 엇비슷했다. 전북에서 나가는 유출인구는 주중에 5,860명, 주말엔 6,464명이었으며, 전주시의 주중 혹은 주말 유출인구가 각각 2,891명과 2,7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완주군의 경우 주중 유출인구가 706명으로 익산시(584명)나 군산시(409명), 김제시(312명) 등지보다 더 많았으며, 주말 유출인구도 완주군(678명)이 익산시(633명)나 군산시(512명), 김제시(322명) 등보다 우위였다.

완주군은 주중이나 주말 모두 유출인구보다 유입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완주군은 주말에 유입인구가 70여 명 초과, 14개 시·군 중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입인구는 타 지역에서 2시간 이상 머물던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2시간 이상 머문 경우를 측정하는 것이며, 유출인구 역시 해당 지역에서 2시간 이상 머물던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2시간 이상 머문 경우를 측정하는 것이다.

앞서 통계청은 2019년 9월부터 SK텔레콤의 모바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전국의 시군구별 인구 유입과 유출 현황 등의 인구 이동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빅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전북과 각 시군의 유동인구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유동인구 데

이터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최근 1년간의 데이터로 주중과 주말 유입유출 인구 현황 데이터를 활용했다.

완주군은 전주시를 둘러싼 지형적 특성과 대도시를 낀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주변지역과 인적 교류가 많은 데다 관광·여행객들의 인기를 끌며 유입·유출인구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완주군은 유동인구 분석이 교통과 관광 등 인구 이동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평가하는데 활용되는 만큼 전북 유동인구 2위에 걸맞은 교통대책과 관광대책 등을 철저히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보성군, '열대 과일의 여왕' 보성에서 키운 애플망고 본격 수확

보성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한 아열대 과수 애플망고가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다.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후 수확하는 보성 애플망고는 18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자랑하며 수입산 보다 향과 맛이 월등히 우수하다.

수입산 애플망고는 식물방역법상 증열처리를 거친 후 수입이 되며, 운송 기간을 생각해 미성숙 상태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먹었던 맛을 잃는 경우가 많다.

보성군은 기후변화 대응에 점진적으로 아열대과수 재배면적을 넓혀가고 있으며, 재배 품목도 다양화하고 있다. 2017년에는 조성면에 애플망고 재배 단지를 조성했으며, 이번에는 특량면에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

성하여 명품 애플망고를 생산하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앞으로 애플망고 재배 농가를 확대하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면서 "현재 애플망고 뿐만 아니라 애플수박, 칸탈로프멜론, 남작복숭아 등 유망 신소득 작목을 발굴, 육성 중이며, 향후 아열대 작목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망고는 칼로리가 낮고 펙틴과 유기산이 다량 함유되어 항산화 작용에 의한 암 억제 효능이 우수하며, 비타민 A, C, D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다른 과일에는 없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이 풍부해 임산부에게 특히 좋은 과일이다.

김영안/기자

전남소방, 도서·산간 안전관리 사각 해소 온힘

전라남도소방본부(마재윤 본부장)가 도서·산간지역 등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균등 소방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남은 전체 면적의 56%가 산림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국 섬의 65%인 2천165개의 섬이 있다. 이런 도서·산간지역은 특성상 화재 구급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본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를 하고 있다. 도서지역이나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화재 취약지에 비상소화장치 499개소와 골목길 소화기함 484개를 정비하고 올해 200여 개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올해 여수 남면과 완도 청산, 진도 조도, 신안 하의, 4곳을 포함한 농어촌지역 119지역대 등에 구급차 10대를 추가 배치해 최근 5년간 유지되고 있는 전국 최고의 심정지 환자 소생률 33%대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3년간 5개 도서지역에 배치된 구급차는 1천969회 출동으로 1천 280명을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한 섬지역 응급환자의 경우 헬기를 적극 활용해 이송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68회 운항해 151명을 이송했다. 올해 10월에는 해무, 강풍 등 기상 제한이 따르는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형급 헬기를 도입한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나르미션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9개 시군 70개 유인도서에 민간선박 128척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558건의 이송실적을 보였다. 나르미션은 섬 주민들의 배를 활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유류비와 수당을 지원하는 선박이다. 지역 주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2005년부터 전남소방에서 최초로 추진했다.

전남지역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도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위한 견고한 발판 마련작업도

순항 중이다. 지난 3월 신안군과 진도군 소방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전남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보다 앞선 1월에는 전남소방본부장을 이전으로 소방지휘부가 도내 모든 권역에 1시간 이내 대응체계를 갖췄다.

마재윤 본부장은 "신청사 개청으로 더 안전한 전남을 위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약속한 만큼 전남 어디에서도 도민 모두가 균등한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무안군, 장마철 수해쓰레기 선제적 대응 나서

무안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 상류로부터 유입된 수해쓰레기 수거에 나서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장마철 집중호우로 영산강 상류의 쓰레기가 영산강 하류까지 밀려오자 몽탄면 이산리부터 삼함읍 남악리까지 15Km 구간에 긴급히 중장비를 투입해 부유쓰레기를 수거했다.

부유쓰레기는 스티로폼, 비닐류와 같은 생활쓰레기와 나뭇가지, 수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 피를 형성하며 상류에서 내려온 뒤 강 수위가 낮아지면 둔치로 떠밀려 온다.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높은 온도와 습도에 부패되어 심한 악취와 2차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

다. 따라서 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쓰레기 수거를 위한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등 재난과 환경오염에 대비했으며, 앞으로 도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중앙부처에 쓰레기 처리비용 고지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에 영산강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수해 직후 바로 수거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 상류에서 대량 유입된 쓰레기 7,700톤을 수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조기석/기자

고창문화의전당, 매주 토(土) 지역 예술단체와 어린이 예술감상 교육연다

고창문화의전당이 매주 토요일 지역 예술단체와 함께 초등고학년 예술감상 교육을 진행한다.

고창문화의전당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운영사업'에 선정돼 지역 예술단체 '국악예술단 고창'과 컨소시엄을 맺었다.

'놀도(노는 토요일)! 꿈도!(꿈꾸는 토요일) 프로그램'은 고창지역 초등고학년(초교 4~6학년) 대상으로 국악실내악, 갈라콘서트, 동학농민혁명 등 다양한 주제와 공연 작품과 연계한 예술감상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되고, 10월에 3기 수업이 끝날 예정이다.

예술감상 교육프로그램은 (1)국악관현악, 실내악, (2)동학농민혁명과 고창판소리, (3) 갈라콘서트 알아보기 등으로 진행된다. 3주간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에는 공연관람을 계획하고 있다.

'국악예술단 고창'의 김경민 주강사는 "유년시절에 본 감동적인 예술작품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며 "참가 학생들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을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YouTube

남원시TV

유아맘 : 대단하심...
벚꽃엔딩 : 맛집 오픈하셔...
찌니 : 남원의 맛~ 기대 됨!
꿈꾸는남만 : 남원으로 가즈아!

춘천 스마트도서관 도서 비치 업그레йд...상호대차서비스시행

기존 스마트도서관 도서 비치 사업 확장판, 스마트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추진

춘천시립공공도서관의 모든 책을 스마트도서관에서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춘천시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스마트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기존 스마트도서관 도서 비치 사업의 확장판 개념이다.

그동안 시청과 남춘천역에 설치한 스마트도서관에서 시립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를 대출 및 반납할 수 있었

다.

이를 보다 확대해 시청과 시립도서관, 남춘천역, 청소년도서관 4곳에서 시립 및 청소년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편리하게 대출, 반납이 가능하게 한다.

먼저 13일부터 26일까지 시범 운영 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대상은 춘천시립공공도서관 정회원이며 먼저 시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후 스마트도서관 상호대차 코너에서 도서를 신청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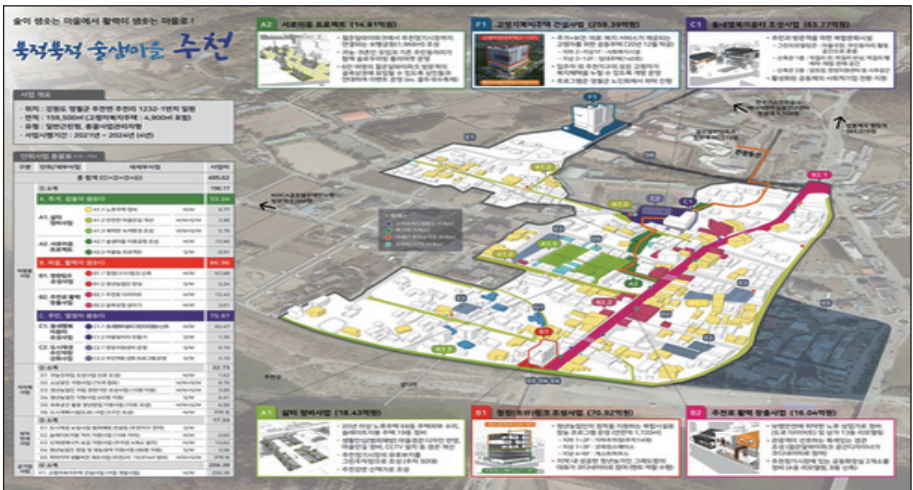
시립 및 청소년 도서관 소장 도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추후 나머지 분관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생활화를 위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많은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를 대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영월, “주천”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으로 3관왕 쾌거



영월군 주천면이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21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민선7기를 시작하며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던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도 영월읍 영흥리 별총마을」에 이어 연속으로 「2019년도 영월읍 덕포지구」, 이번엔 「주천면 주천지구」도 선정되면서 공모

사업 3관왕에 등극, 그야말로 지역발전의 불균형 해소 끝판왕으로 경제회생, 정주환경개선, 생활SOC시설 공급 등 삼박자를 고루게 갖추게 되는 기회를 거머쥐어 경쟁 지자체들의 부러움을 한껏 사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주천지구 도시재생사업 계획은 작년부터 지역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영월군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며 집체된 지역경

제를 회생시키고 장기적 관점의 도시발전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영월군 서부지역의 행정·상권·관광·교통·교육 기능 등 핵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의 좋은 결과물로 이어져 주민화합과 지역성장의 원동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495억원(국비100억, LH216억, 지방비149억, 도시기금10억 등)에 달하며 주천 중앙로 및 재래시장 개선사업, 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노후 주택·점포 정비사업, 공원조성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활력이 샘솟는 마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월군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는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민들이 지역발전 이라는 목표로 서로 협력·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동해해경,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 실시

법률상담, 환경정화 활동 등 바다가족(민원인)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

동해해양경찰서는 바다가족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 편의증진을 위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삼척시 임원항 수협 위판장에서 ‘찾아가는 해양경찰 종합민원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는 어업인들 대상으로 법률상담, 항포구 정화활동, 어선 통시기기 정비서비스 실시하고 홍보품품 배부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바다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는 등 소통과 공감으로 한 현장행정 활성화 구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

이다.

또한, 삼척체력인증센터에서 지역민들의 인바디(체성분 분석), 혈압측정 등 간단한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운동 처방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해경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강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공모 2곳 최종 확정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공모에 전국 13곳 중 도내 2곳이 확정되어 앞으로 3~4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하여 총 585억 원을 투입, 지속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2021년 상반기 전국 공모 결과 13곳을 선정하여 7월 8일 확정 발표했다. 도내에서는 홍천군과 영월군이 공모 신청하여 2곳 전부 최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홍천군은 홍천읍에 소재한 구 홍천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생활 복합허브”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국비 50억을 포함하여 총 98억원으로 도서관, 노인교실 등 생활 SOC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여 곧 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영월군은 주천면 주천리 일대에 “살기좋은 숲섬마을”이라는 테마로 총 487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임대주택 140호를 비롯하여 노후주택정비 68호, 노후 상가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주천시가지의 주거 및 상업지 일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지난해 강원도가 전국 최우수 평가로 상반기 광역선정 5곳을 배정받아 선정완료 하였으며, 이번 국토교통부 공모에 2곳이 추가 선정됨으로 뉴딜사업이 급년에 역대 최대 선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공모 과정에서 열심히 참여한 지역주민과, LH 강원지역본부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꾸준히 발굴함은 물론 선정사업에 대하여 계획기간 내 실질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동원/기자

강릉시, 강원도 최초 하수처리장 스마트화 공모사업 선정

강릉시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20. 9월 하수처리장 무인운전을 위한 기술의 초석인 자동 운전 기술을 강원도 최초로 도입하고자 공모사업을 신청, 지난 7월 정동진 공공하수처리장이 최종 선정되었다.

'21년 스마트 하수처리장 공모사업 선정 대상지는 전국에서 6개소이고, '22년에는 7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30억 원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한다.

환경부에서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도입이 성공적인 효과를 가져올 경우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 사업은 하수처리장 운영의 빅데이터화를 통해 전기 사용량 및 폐기물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최적의 판단을 내려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을 절감시키고, 각종 수질사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갖춘 사업이다.

강순원 하수과장은 “지금까지 인력과 수동적인 자료수집 및 판단을 통해 경험적인 운영을 해 온 것과 달리, 빅데이터화를 통해 자동적인 자료수집과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강원도 최초로 시행하는 하수처리장 기술적인 발전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진 공공하수처리장 스마트

정동희/기자

한 폭의 그림에 담긴 우두동 감상하세요

우두동 그림산책 전시 '우두동 우두두두동' 15일부터 31일까지 신사우도서관 진행

우두동을 담은 풍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은 15일부터 31일까지 신사우도서관 2층 로비에서 '우두동 그림산책' 전시회 '우두동 우두두두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두동 우두두두동'은 우두동 주민 원미경씨가 그린 우두동 풍경화 20점을 전시, 지역 주민의 소통의 장이다.

특히 도서관을 책을 읽거나 빌리는 장소를 넘어 전시 공간으로 활용, 예술문화공간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다.

전시 작품은 어반스케치(도시의 건물, 거리, 풍경, 사람들을 그리는 것)다.

작품은 '과수원을 품은 집' 외 19점이며 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

원미경씨는 “그림 속 공간에 살고 있는 주민이 많이 전시를 찾아주셔서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다는 ‘작은 기쁨’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며 “또 우두동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을 탐색하는 작은 시선에 공감하는 먼 걸음에는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사우도서관 관계자는 “우두동 지역 작가가 그린 우두동의 모습을 전시해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태백시, 코로나 확산 저지 총력 대응 나서

태백시는 관내 중학교발 확진자 13명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추가 확산 저지에 총력이 나선다.

강원도 행정명령에 따라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관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7월 9일부터 수도권 방문자에 대한 행정명령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선제적 검사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가진단 검사키트 2,200개를 배부하여 오는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요양원, 군부대, 유증업소,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아이돌보미·보육교직원 201명에 대해서는 이달 안에 3차례에 걸쳐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강원도청 주관하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5개교에 대하여 자체 선제검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7월 9일부터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와 황지고등학교를 시작으로 7월 12일 황지초등학교, 7월 13일 장성여자고등학교와 함태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총 1,66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학부모도 원할 경우 검사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외출과 모임, 회식, 가정 내 모임 또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과 코로나 19 예방접종 예약시기를 놓치지 말고 접종을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철원군 진입 43번 국도 도계지역 환경 개선 나선다

축산악취 해소 및 조형물 조성 등 이미지 제고 위한 용역 완료

철원군이 경기도와 접한 43번국도 도계(도와 도의 경계) 지역 환경 개선에 나선다.

철원군은 7월8일 군청 상황실에서 '43번국도 도계지역 환경정비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에는 43번국도 구간 중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정비 계획으로 축산악취와 도계지역 시설물 정비 계획이 중점 검토되었다.

용역 결과, 철원군으로 인식되는 포천시 송정검문소에서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도계지역까지 포천시 22곳의 축산농가가 차도 30m 내 위치

해 있으며, 악취가 가장 심한 15곳의 닭 농장 중 4곳이 강포리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지역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포천시와 유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더불어, 철원군 관할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스마트 축산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고, 도계구간 철원 진입 지점에 노후화 된 사인물과 조형물을 새롭게 디자인 해 변화하는 철원의 이미지를 담은 방안도 담겨있다.

권용길 기획감사실장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세워 43번 국도 도계 지역의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서간 유기적으로 협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영월, “주천”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으로 3관왕 쾌거

영월군 주천면이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21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민선7기를 시작하며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던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도 영월읍 영흥리 별총마을」에 이어 연속으로 「2019년도 영월읍 덕포지구」, 이번엔 「주천면 주천지구」도 선정되면서 공모

며, 영월군 서부지역의 행정·상권·관광·교통·교육 기능 등 핵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의 좋은 결과물로 이어져 주민화합과 지역성장의 원동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495억원(국비100억, LH216억, 지방비149억, 도시기금10억 등)에 달하며 주천 중앙로 및 재래시장 개선사업, 귀촌인 정착 지원사업, 노후 주택·점포 정비사업, 공원조성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활력이 샘솟는 마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월군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는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민들이 지역발전 이라는 목표로 서로 협력·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이동원/기자

대전, 아름다운 대한민국 땅 독도! 독도사랑을 실천하다

꿈나래교육원, '나라사랑 울릉도·독도 문화체험' 실시

대전교육연수원 부설 꿈나래교육원은 나라사랑 문화체험으로 7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울릉도·독도를 탐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나라사랑 울릉도·독도 문화체험'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역사 왜곡실태를 확인하여 독도에 대한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고,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독도 사랑과 영토주권의식을 되새기고자 계획되었으며, 이번 체험을 통해 독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소중한 영토임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다.

체험일정은 포항의 문화탐방을 시작으로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체험하고, 성인봉(986.5m) 정상까지 오르면서 희귀수목을 관찰

하고,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암석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기상악화로 독도는 선회할 수밖에 없었지만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시연행사를 울릉도 광장에서 진행하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도경비대에 감사편지와 응원메시지를 간접 전달하였다.

체험에 참여한 누리울중 3학년 장 OO 학생은 "독도에 못 가서 서운하지만 울릉도에서 진행한 플래시몹 시연행사는 평생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외로운 섬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꿈나래교육원 이석구 부장은 "학생들이 독도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체험하며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랐는데 선회하게 되어 많이 아쉽다. 그러나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독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며, 독도수호 정신과 독도 사랑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세종시 특교세 27억 원 확보로 시민 편의 높인다

은하수교차로 시설 개선 사업 등 5개 사업 추진 탄력 전망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지역 현안, 긴급한 재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그 재정수요를 보전하는 제원이다.

시가 올 상반기 신청·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5개 사업 27억 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20억 원(2개 사업)을 확보했던 것에 견줘 7억 원이 증가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은 ▲은하수교차로 시설 개선(7억 원) ▲장군면 대교리 리도 정비(8억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7억 원) ▲자전거도로 도로환경 개선(4억 원) ▲내동천 제방 보수(1억 원)이다.

시는 먼저, 은하수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출·퇴근시간대 정안나들목(IC) 방면에 상습적으로 발생해온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중단됐던 장군면 대교리 리도 212호 정비사업 또한 고운동 ~ 장군면 구간 공사를 재개·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교통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구도심에 아동 놀이 공간 조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동천 제방 보수 사업은 하천보수를 통한 재해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도로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일명 '전동킥보드'인 PM(Personal Mobility)의 자전거도로 주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이준희 시장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에 중앙부처에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라며,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확보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대전시 동구, 대청호 오백리길 등, 한국관광공사 '방역우수 관광지' 선정

대청호 오백리길, 대동하늘공원, 만인산 자연휴양림 3곳

대전 동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대청호 오백리길, 대동하늘공원 및 만인산 자연휴양림이 코로나 19 방역 우수 관광지로 선정돼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황운서 관광문화체육과장은 "이번 방역 우수 관광지 선정은 구가 코로나 19로 위축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코로나 19 상황이 하루빨리 종료돼 전국의 관광객들이 동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관광명소를 찾아와 안심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방역 우수 관광지로 선정된 3곳은 민선 7기 관광도시 동구 조성을 위해 지정한 '동구 8경'에 포함된 곳으로 구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더불어 한국관광공사 '전국 야간관광 100선' 및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돼 전국적인 테마 관광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최만식기자



이차영 괴산군수, 집중호우대비 철저 지시



충북 이차영 괴산군수가 8일 PC영상회의로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이 군수는 "지난 밤 발생한 기습 폭우를 포함해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급경사지, 절개지, 위험 건축물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업 현장 및 농작물 침수·유실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7일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진행된 농촌협약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언급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괴산군이 이번 농촌협약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추진되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 경제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사업인 농촌재생뉴딜사업, 주거 플랫폼 조성사업이 차질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괴산군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농산물 6차 산업화와 4차 산업혁명의 접단사업인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유치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일자리정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했다.

최만식기자

홍성군, 다(多)자녀가정혜택 카드 1장에 다(多)담다!

홍성군이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인증카드를 발급해 불필요한 서류제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는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 제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신분증 개념의 카드로 작년 첫 도입이후 올해까지 702가구에 카드를 발행했다.

이 카드 한 장으로 홍성군 내 다자녀가정은 △무주택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홍주문화회관 공연료 감면 △용봉

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는 연중 신청 가능하며,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선용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으로 군민들이 간편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인규정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부여군, 관광객이 뽑은 충남관광 100선에 10곳 선정



부여군의 주요 관광지 10곳이 관광객이 직접 뽑은 충남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충남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뽑힌 부여군 관광 명소로는 ▲국립부여박물관 ▲공남지 ▲능산리고분군 ▲무량사 ▲백제문화단지 ▲부소산성 ▲부여 유람선전착장 ▲서동요테마파크 ▲성흥산 사랑나무 ▲정림사지 등 10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공남지와 부소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1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국내 대표 관광지이며, 성흥산 사랑나무는 '육룡이 나르샤', '호텔 델루나' 등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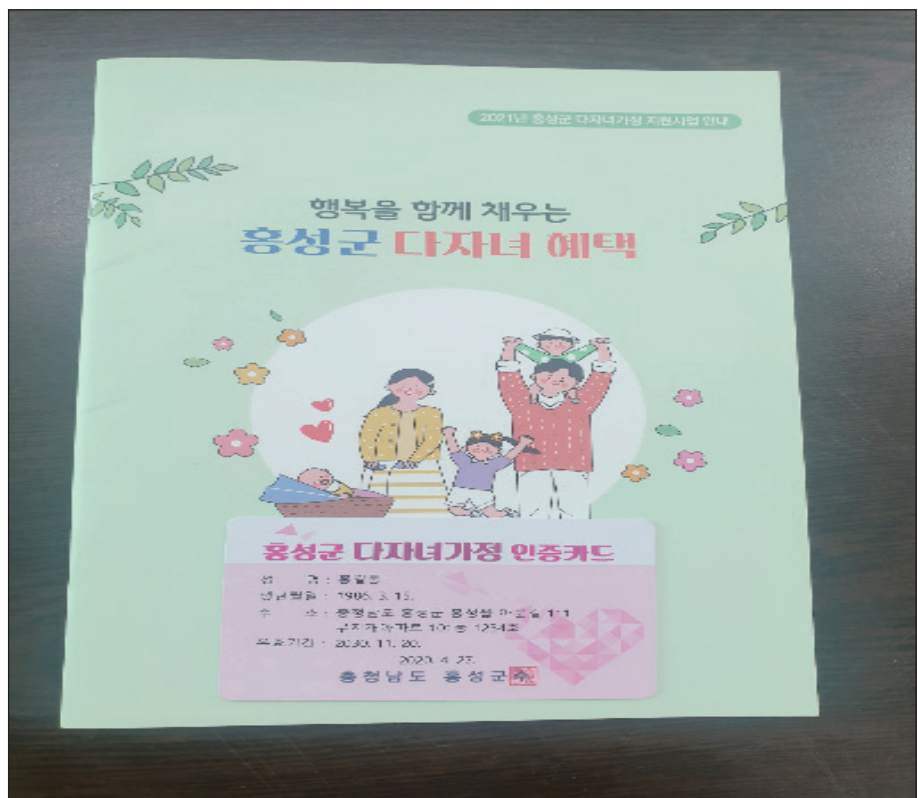
공남지는 전국 대표 연꽃 명소로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는 10일에는 서동연꽃축제 개막을 앞두고 있다.

성흥산 사랑나무는 보는 방향에 따라 가지 뻗음의 모양새가 하트 모양을 닮아 사랑나무로 불리게 되었으며, 특히 인생 사진 명소로 매달 평균 6,2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최근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지정을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관광지 10곳은 부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직접 투표해 뽑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요 관광지 중심의 연계 상품 개발 및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속도낸다!!

충주시가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에 더 가까운 도시에 걸맞은 성과를 드러냈다.

시는 지난 2일 열린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정책심의회에서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심의를 통과하며 2021년 2분기 충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이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현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앞으로의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서충주신도시에 입주한 충주기업도시, 충주메가폴리스 및 첨단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중부내륙권 성장거점도시를 육성하고자 중앙방면에 법현산업단지를 추진해 왔다.

법현산업단지는 사업지 66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중앙방면 용전리 일원에 28만8,000m2의 규모로 조성된다.

시는 법현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전반의 발전적인 미래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되었던 산단 내 농장 이전에 따라 서충주신도시 주민 1만5천 명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농장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농장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법현산단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1천5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추가적인 산단 확보로 경제발전에 더 가까운 산업 일터로 도시 완성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법현산단 조성에 최선을 다해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주)성덕중공업 손성기 대표, 7월 김해시 자랑스러운 CEO상 수상



김해시는 8일 시장실에서 (주)성덕중공업 손성기 대표에게 7월 김해시 자랑스러운 CEO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림면 퇴래리에 위치한 (주)성덕중공업은 2002년 설립된 선박부품제조업체로 주력제품인 선박용 배관을 삼성중공업(주)과 대우조선해양(주) 등 우리나라 대형조선소에 납품하고 있다.

(주)성덕중공업은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과 조선업 장기불황이 겹쳐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글로벌 기술 경쟁력으로 해외 선주 신뢰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미국 나스코 조선소 군함 4척, 캐나다 어빙 조선소 상선 2척, 일본 이마바리 조선소 상선 20척의 배관을 수주해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2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관리자과 현장근로자 공동 품질 개선, 사례 발표 우수 근로자 성과급 지급, 고용 보장 등 회사 설립 이념인 노사 간 상호협력과 평형경영을 꾸준히 실천하며 조선배관 전문기업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손성기 대표는 김해상공회의소 상임의원을 역임하면서 관내 기업체 간의 상생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해 애쓰는 동시에 지역 저소득층에게 방역물품과 성금을 기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손성기 대표는 “지역 내 노력하시는 많은 기업 대표분들을 대신해 이번에 자랑스러운 CEO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성근 김해시장은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에 한국 조선사 수주량이 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관내 많은 조선부품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 시에서도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 '2021 전국유권자대회 사회공헌대상' 수상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지난 7월 7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21 전국 유권자대회'에 참석하여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김정재 의장은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힘쓰는 것은 의연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봉사하며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만식기자



중랑구, 서울우유협동조합·SIG콤비블록코리아로부터 코로나19 극복 후원물품 전달받아

중랑구는 8일 오전 서울우유협동조합, SIG콤비블록코리아로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6백만원 상당의 멸균우유(1L) 3,000팩을 전달받았다.

전달받은 멸균우유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푸드마켓 등 37개 기관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나해 멸균우유 6천 팩에 이어 올해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품을 후원해주신 서울우유협동조합과 SIG콤비블록코리아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주신 물품은 저소득 어르신과 어린이 등을 위해 필요한 곳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이천시 창전동 사랑의 삼계탕 나눔행사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 창전동분회(회장 김세영), 창전동 부녀민원봉사대(회장 정선옥)은 8일 창전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200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 창전동분회는 지난 3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 지원대상자 공모에 선정되었다.

창전동부녀민원봉사대와 함께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 창전동분회가 “사랑의 자장면 나눔 봉사”를 계획 중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리가 진행되었

고, 창전동통장단, 창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창전동행복지킴이가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가정방문하여 전달하였다.

천기영 통장은 “올 여름 무더위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맛있게 드시고 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선옥 회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우리들도 절로 행복해진다. 앞으로도 아낌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는 1994년 창전동 부녀민원봉사대가 회원들의 사비로 조복에 삼계탕을 대접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벌써 28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성윤기자



단양군 모범운전자회, 우리동네 히어로 선정!

충북 단양군은 단양군 모범운전자회가 학생들과 주민들이 뽑은 자랑스러운 우리동네 히어로로 선정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민제안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단양중학교 '새로운 단양'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연 신청을 받아 우리 동네를 위해 애쓰는 영웅을 발굴하는 '우리동네 1만 Hero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프로젝트'에서는 단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북수생태해설사협회 등 군민들의 많은 추천을 받은 10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학생들은 소정의 선물로 목걸이형 선공기와 히어로 배지를 전달했다.

최만식기자



홍성열 증평군수, '대한민국 노인복지문화대상' 수상

홍성열 증평군수가 8일 서울 국가원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에서 대한민국 노인복지문화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전페스티벌은 도전 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사)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하고, 서울시, (사)대한노인회, 국기원 등이 후원하는 행사이다.

특히 2014년부터 매년 7월8일을 도전의 날로 선포해 시상식 등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내 인사 뿐 아니라 10개 국 주한외국대사들이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홍 군수의 이번 수상은 △분해교육 △실버 영화 상영 △변사 공연 △찾아가는 동행학당 등의 다양한 노인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는 지난 5월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세대 통합의 모범을 보인 점이 높게

평가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홍 군수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문화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이 행복한 도시 증평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만식기자



충주시, '2021 충주시 시민대상' 시상식

충주시가 지역을 빛낸 인물에게 수여하는 '2021 충주시 시민대상' 수여식이 8일 중앙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충주시민대상은 지역의 명예를 빛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충주시 최고의 상으로 지난 1981년 중원군민 대상을 시작으로 30년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충주시 시민대상은 부문별로 △산업·경제/안재환 금강전기산업(주) 대표(남, 57세) △농림축산/서승범 (사)한국쌀전업농중앙회부회장(남, 61세) △사회봉사유리/김기자 산척면향기누리회회장(여, 79세) 등 3인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안재환 금강전기산업 대표는 품격 및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한 공과 30여 년간 지역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승범 한국쌀전업농중앙회회장은 미소진쌀 명품화 사업, 새일품벼 품종개발로 지역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과 지역 농업인의 농업 재해 보험 가입을 유도해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기자 산척면향기누리회장은 20여년 간 홀몸 어르신 돌봄과 소외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공과 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시 시민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하면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헌신 봉사하는 이웃들이 수상자로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의령군, 오병환 새마을의령군지회장 명예군수 체험

오태원 의령군수는 9일 군수실에서 오병환 새마을운동의령군지회장을 제7대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고 '군민 우선, 화합 의령'의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실천을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병환 명예군수는 이날 오전에 '1일 명예군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2021년 군정 추진방향을 파악하는 등 주요 군정을 살폈다. 오후에는 군민의 주요 관심분야로 무더위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대비 운영 실태를 살피고,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빠듯한

일정을 수행했다.

오 명예군수는 “상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 명예군수는 “군정의 변화와 혁신 방향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령군은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 정책의 지속적 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매주 명예군수를 임명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영훈기자



부산박물관 2021년 특별전 '부산의 뿌리, 동래' 개막

부산시 부산박물관은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52일간 2021년 특별전 '부산의 뿌리, 동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전시 공간의 전면 개보수와 전시 트렌드에 맞춘 입체적 전시를 통해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174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을 별도 독립장에 전시해 관람객이 고려 시대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발굴품 및 박물관 소장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산의 고대·중세문화를 '동래'의 영역 확장과 공간의 변천 과정에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전시는 ▲1부 '동래군 이전에 가야가 있었다' ▲2부 '동래군, 기장현과 동평현을 거느리다' ▲3부 '동래현, 지방관이 파견되다'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부산의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다.

1부 '동래군 이전에 가야가 있었

다'에서는 철을 소유한 지배자의 부와 권력의 모습, 가야토기의 변천상, 부산 유일의 거대한 봉분을 가진 무덤군인 연산동고분군, 군사적 요충지였던 동래 최초의 산성인 배산성에 대해 알아본다. 연산동 고분군은 동해에서 수영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만들어졌으며, 조사된 대형 구덩식돌덧널무덤 안에서는 다량의 꺼묻거리가 확인되었다. 배산성은 당시 군사적 요충지로 행정과 경제적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

2부 '동래군, 기장현과 동평현을 거느리다'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한반도 동남부의 중심고을이었던 동래군의 불교와 화장문화, 의례와 생활문화, 기와건물의 특수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전시하였다.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가 확산되면서 화장무덤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뼈항아리의 사용도 빈번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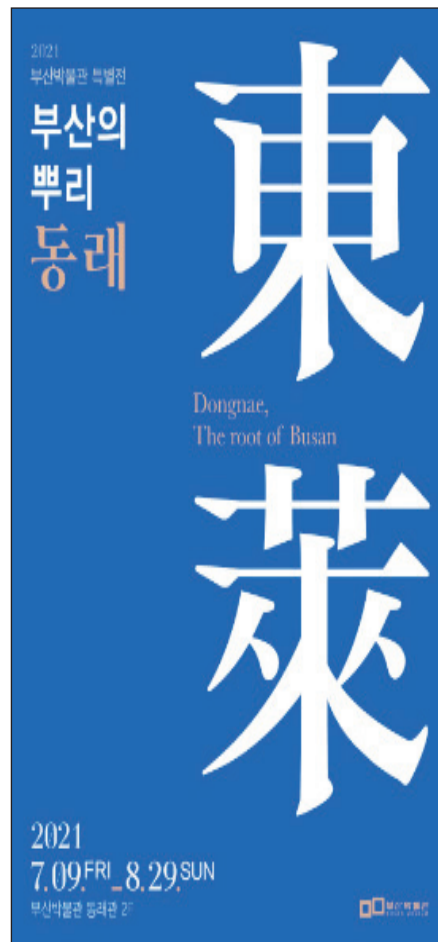
3부 '동래현, 지방관이 파견되다'에서는 유물에 보이는 동래와 부산 지역의 토호인 동래 정씨 가문의 흔적, 지방 호족 문화, 고려의 다양한 불구(佛具), 당시 사람들의 생활 문

화를 조명하였다. 전시 유물 중 보물 제1518-2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 경'은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 중 하나로 1380년(고려 우왕 6년)에 간행됐으며, 보통 '원각경'이라고 한다.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174호 '감지금니묘법연화경'은 1276년(고려 충렬왕 2년)에 간행된 것으로,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불린다. '화엄경'과 쌍벽을 이루는 대승불교 경전이다.

이번 특별전은 별도의 개막식 없이 개최될 예정이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전을 포함한 부산박물관의 모든 전시 관람은 당분간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된다. 사전예약은 부산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신청하면 된다.

송의정 부산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부산의 고대·중세문화를 새로운 자료로 구성하고 풀어봄으로써, 시민들에게 부산의 역사적인 흐름을 재조명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신나는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1년 6개월만에 무대 오르는 꿈나무들

춘천문화재단은 오는 7월 21일 오후 7시 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21 신나는 오케스트라 -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신나는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춘천의 아동·청소년이 음악적 감수성을 키우고 올바른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게 춘천문화재단이 2010년부터 진행해온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단원이 함께 음악을 통해 협동심을 배워가고 있다.

58명의 단원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진행되는 두 차례씩 정기교육뿐 아니라 악기를 처음 접하는 신입 단원들을 위한 기본기 수업과, 역량있는 단원들에 대한 면담 및 세부 레슨 등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6개월 만에 다시 무대에 올려지는 이번 정기 연주회에서는 단원들이 직접 선정한 '사운드 오브 뮤직', '디즈니 매들리' 연주, 그리고 대중에게 친숙한 뮤지컬 모차르트의 '황금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영화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이 성악가 김중석, 정지혜와 함께 협연될 예정이다. 베토벤 '5번 교향곡(운명)', 드보르작 '9번 교향곡(신세계로부터)' 등 정통클래식 연주까지, 이번 정기연주회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건네고 그간 쌓아온 신나는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기량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나는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박기범 음악감독은 "코로나로 인해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며 아이들이 악기를 놓지 않도록 힘써왔으며, 지난해 코로나로 진행되지 못했던 정기연주회의 아쉬움을 달래고 그동안 많이 성장한 아이들의 음악적 표현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이며, 만 5세 이상 입장할 수 있다. 공연 정보와 사전 예약은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기타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이등원기자



밀양아리나, 7, 8월'아리나 연꽃축제'의 여행



밀양시는 「아리나 연꽃축제」를 '연꽃이 피면 예술도 핀다'라는 슬로건으로 밀양아리나에서 오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개최한다.

주변의 그윽한 연꽃 향기에 다채로운 공연을 더해 밀양아리나를 더욱 풍성하게 할 행사들이 마련됐다.

먼저, 오는 10일과 17일에 연극 2편을 만나볼 수 있다.

10일에는 대경대학교 공연예술과 4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루나사에서 춤을」이 오후 2시와 6시, 스튜디오 1극장에서 공연된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세계적인 명작이다.

연극 공연 사이에는 밀양아리나예술단의 한국무용, 하모니카, 바이올린, 시낭송, 통기타 등 버스킹 공연이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17일 오후 2시와 6시에는 밀양시 민연극단 '꿈을 즐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공연을 스튜디오 2극장 무대에 올린다.

극단 '꿈을 즐기는 사람들'은 밀양 생활예술인 중심으로 구성된 극단으로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하게 활동하며, 각종 악기와 춤, 시조, 시낭송, 마임 등을 특기로 하는 배우들로 지난 4월 2일에 창단했다.

이번 공연은 창단을 기념하며 제작한 작품으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극이다. 특별한 그녀 '어머니'를 주제로 요양병원의 일상적 모습을 통한 잔잔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다.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202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문화씨앗가꾸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전시체험행사도 열린다. 도자기공예, 한지공예, 섬유공예, 은공예, 플라워아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8월 21일, 오후 4시 30분에는 밀양아리나예술단(단장 장진호) 14개 팀이 준비한 버스킹공연이 열린다. 통기타, 하모니카, 색소폰, 라인댄스, 방송댄스, 시조창 등 현장감 있는 공연들을 선보인다.

8월 24일부터 28일, 밀양아리나 물빛극장에서는 「한국 1950년대 영화포스터전 '추억의 타임머신」 전시회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1950년도 영화 포스터의 원본을 접할 수 있으며, 한국영화 흥흥기의 그리운 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8월 28일 오후 7시 밀양아리나 물빛극장에서는 여름밤의 매미를 장식할 「가을맞이 비콘서트」가 열린다. 밀양아리나 버스킹팀·레이저 퍼포먼스·초청 예술인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설레는 가을의 시작을 선사할 것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장은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는 밀양아리나에서 7월과 8월에 「아리나 연꽃축제」와 「제21회 밀양공연예술축제」가 함께 개최된다. 감동, 재미, 추억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공연들로 풍성하게 준비했다."라며 "여름 휴가 기간 밀양에서 즐거운 공연과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로 힐링과 감동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평창군, 동계올림픽 10주년 기념행사 추진

평창군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123차 IOC총회 1차 투표에서 63표를 획득하며 두 번의 아픔을 극복하고 유치에 성공한 2018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유치 10주년을 맞아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그날 이후 평창, 10년의 기억, 10년의 기억』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림픽 유치 1주년 당일인 7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 방문객 38명에게 동계올림픽 기념품(수호랑 반다비인형,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올림픽 메달플라자(우천 시 올림픽기념관)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성공·개막 스토리를 담은 신문 헤드라인 30점을 9일까지 전시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은 국민이 함

께 기뻐했던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 받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가치가 재조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념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진전시와 방문객 기념품 증정 등의 행사를 간소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등원기자



해남에 30년만에 영화관 들어선다 '군민 문화지수 쑥'



해남군 작은 영화관 '해남시네마'가 7월 13일 개관한다.

해남군에 영화관이 운영되는 것은 1990년대 중반 마지막으로써 극장이 문을 닫은 이후 30여년만으로, 군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을 헤리예 문을 여는 해남시네마와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4,539㎡ 부지에 연면적 2,171㎡, 4층 건물로 1층은 영화관, 2~3층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로 운영한다.

특히 작은 영화관 건립은 민선6기 당시 장소 문제로 사업이 한차례 무산되었다가 민선7기 출범 후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가족 단위 문화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화관은 136석 규모의 상영관 2개(1관 91석, 2관 45석)와 휴게공간으로 구성됐다.

연중 무료로 관람료는 2D는 6,000원, 3D는 8,000원이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청소년은 2D요금에 한해 1,000원을 할인한다.

13일에는 개관식과 함께 개관 기념으로 오후 4시와 7시 20분 군민 무료 상영을 실시한다. 무료상영작은 조주진 주연 '발신제한'고두심·지현우 주연 '빛나는 순간'으로 당일

정오(12시)부터 선착순으로 티켓을 배포한다.

또한, 영화관 개관 이벤트로 7월 말까지 현장티켓 1장 구매 시 평일 관람권을 증정하며, 개관 기획전으로 평일 오전 예술·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씨네 불런치'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청소년누림문화센터도 13일 개관과 함께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각종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는 2층은 댄스 연습실, 개인·단체연습실, 녹음실에서 방송 댄스와 보컬 교습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학습실과 휴게공간이 들어선다. 3층은 북카페와 함께 3D프린터 활용, 요리 교실 등이 운영될 창작공작실을 비롯해 다목적강당과 사무실 등으로 채워진다.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은 시설 대부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은 후순위로 소액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작은영화관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가족 단위 군민들이 여유로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전주시,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서 청년예술가 전시전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에서 오는 30일까지 지역 청년 예술가인 니나킵 작가 특별 전시전을 연다.

전북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니나킵 작가는 이번 전시전에서 △Smile △Diet △More Slow △ Love 등을 주제로 한 일러스트 그림을 비롯해 경기전, 전통성당, 풍남문 등 전주명소를 소재로 한 작품, 장문예 그림을 그려 완성한 윈도우 페인팅 작품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어른은 아니고 서른입니다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Mother △사라지고 싶은 날 등 작가의 저서와 함께 삽화 작업을 한 도서도 함께 전시된다.

시는 이번 전시전을 통해 지역에

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작가의 작품

을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예술 작품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은 지역 작가의 색다른 작품을 전시하고 작가들과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역 앞에 위치한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은 잡지·여행책·한정판 도서와 미술, 디자인, 사진, 건축 등을 주제로 한 아트북이 비치돼 있으며, 시민과 여행객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특화도서관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김승일기자



청주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

청주시가 7월 한 달 동안 주청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1535명, 체납액 1억 9000만 원에 대한 예금압류 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예금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예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예금을 납부기한 후에 압류할 예정이다.

예금압류가 되면 압류된 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돼 인출할 수 없게 된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금융기관에 압류해제통지서를 통보해 예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한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및 신용카드(ARS 043 201 7942)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는 납부자와 관계없이 365일 23시 30분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별 강력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최근 20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군산시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9일 백중현 군산시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20대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확진자의 발생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자, 확진자 접촉자, 발생원인 조사 중 등으로 식당과 주점 등을 방문하며 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및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20대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방역취약시설 및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강력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염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단,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운영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유흥시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주기적인 환기 소독과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백 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지만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 등의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면서 “이번 주말 불요불급한 약속 및 외출을 자제하고 수도권을 비롯해 타지역 왕래 등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시도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방역상황 점검과 예방접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태/기자

파주시, 편의점·중소 슈퍼 내·외부 음식물 취식금지 행정명령

7월 8일부터는 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파주시 지역 내 편의점 및 중소슈퍼 내·외부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

이는 최근 편의점, 중소마트 등에서 음식을 구입한 후 점포 외부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져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및 중소슈퍼 내·외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완전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만큼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곡성군, 청계동 자연휴식지 행락철 운영 중단

재해복구 공사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8월 31일까지 운영 중단

곡성군이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계동 자연휴식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청계동 자연휴식지는 곡성군의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인근 도심에서 휴가를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남부 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청계동 자연휴식지에는 수해가 발생했다. 수해 발생 이후 피해 조사와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올 초 재해복구를 시작했지만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최근 수도

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행락철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곡성군은 해당기간 동안 2인 1조의 행락질서 계도요원을 구성해 방문객 진입을 차단하고 자연휴식지 내 불법행위 등을 계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원한 피서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께 아쉽게 됐다. 내년에는 방문객들이 더 좋은 모습의 청계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홍/기자

천안시 청년멘토육성지원사업, 청년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천안시와 백석대산학협력단 주관 청년멘토육성지원사업이 청년멘토단을 구성하고 심리지원서비스 ‘함께 걸어봄’ 제공을 위해 청년 내담자를 모집한다.

심리지원서비스는 만 18세~39세 천안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의 천안 청년들이 겪는 성격, 관계, 정서, 삶의 의미, 진로 등 심리적 문제를 돕기 위해 무료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1:1심리상담, 커플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천안에 거주하거나 천안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재학, 휴학 무관) 또는 천안 소재 직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곽원태 교육청소년과장은 “청년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닫힌 관계 욕구로 쉽게 좌절하거나 우울할 수도 있는데 멘토들과의 만남으로 청년들의 마음건강과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위축돼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2021 청년멘토육성지원사업

함께, 걸어봄

천안시 청년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함께 걸어봄이 무엇인가요?
생애 전환기 천안 청년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성격, 관계, 정서, 삶의 의미, 진로)를 돕기 위해 무료 상담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8세~39세
- 천안 거주 청년 및 천안 소재 대학생(재학·휴학·대학원생 포함)
- 천안 소재 직장에 취·창업 한 청년

지원서비스
1대1 심리상담, 커플 상담, 심리검사 및 해석상담

신청방법
blog.naver.com/2020mento
심리지원서비스 게시물 참고

신청기간
2021.07.06 ~ 2021.11.30일(수)까지
*모집인원 미달시 수시모집

문의사항 백석대학교 청년멘토육성지원단 041-550-0677

최정부/기자

청주 흥덕보건소, 도시공원 금연·금주 태양광 안내판 설치

금연·금주 공원
No Smoking No Drinking

흡연시 과태료 부과
음주·음주조장행위 제한

이 곳은 흡연·음주정공원으로 금연·금주를 실천합니다.

청주시 흥덕보건소

청주시 흥덕보건소가 도시공원 금연·금주 태양광 안내판을 설치한다.

흥덕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음주와 음주 조장 행위 제한을 통한 쾌적한 휴식 환경 조성을 위해 태양광 안내판 설치로 금연·금주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흥덕구 지역 내 도시공원 중 이용객이 많은 공원 8곳을 선정해 태양광 안내판 9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설치된 금연·금주 안내판은 먼 거리에서도 눈에 잘 띄울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태양광 LED를 활용한 안내표지판은 야간에도 환하게 등어져 시각적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올바른 금연·금주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할 방침이다.

도시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하계 휴가기간을 대비해 지역 내 도시공원에서 흡연자의 금연 유도, 음주 행위 제한을 통해 시민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시흥시 군자동, 장마철 대비 공사 현장 점검

시흥시 군자동은 지난 8일 장마철을 대비해 지역 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주거시설과 인접한 공사 현장인 도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현장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장마철 전후로 토사정리 및 반출작업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집중호우 시 인근 주거지로의 토사유출 방지 대책은 어떠한지, 대형차량 진출입 시 비산먼지 방지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김재구 동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꾸준한 공사 현장 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자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자동은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해서 매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농촌체험휴양마을(외암마을)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9일 오후 농촌관광시설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위해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농촌체험휴양마을(외암마을)을 방문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여름 휴가철 가족 단위로 농촌체험을 위해 많이 찾는 곳으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장소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까운 외암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제236호)로도 지정(2001년 1월)되어 2020년 약 13만 명이 다녀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농식품부는 다중집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더 세심히 살피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의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농촌관광시설과 종사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대응 여름철 특별방역대책’과 연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사업장에 대한 안전·방역점검(6.7.~9.30.)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용인시,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PCR 검사 이행 여부 점검

용인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관내 학원 종사자들의 코로나19 PCR 검사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학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오후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지난 7일 수지구 흥덕천동 소재의 수학학원과 어학원 등 5곳을 방문해 시의 행정명령에 따른 학원 종사자들의 PCR 검사 이행 여부와 학원 내 방역 상태를 점검했다.

또 학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원 내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후석 제1부시장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학원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PCR 검사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검사는 오는 15일까지 처인·



기흥·수지구의 3개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며, 조치에 불응 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다.

최정부/기자

충청남도, 지역경제 성장 이끌 경제 발전 전략 점검

‘충남경제발전전략’ 상반기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 현황 공유

충남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상반기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 관계자, 경제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보고회는 총괄보고, 실·국 과제별 보고, 의견수렴 및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도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 경제 중심,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과 균형성장 △참여와 창출 △순환과 자립 △포용과 상생 △개방과 협력 등 5대 목표 98개 실행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발전 전략 98개 과제의 상반기 추진 상황을 살피고 일부 부진한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로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충남 소프트웨어(S/W) 융합산업 육성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 △청년 창작·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지역금융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제조혁신파크 조성 △충남형 인재 발굴·육성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시티 조성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방과학혁신도시 조성 등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과제를 보완·개선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 추진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전략 과제들은 미래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핵

심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중장기적 사업”이라며 “지역경제 현실에 대응하는 과제를 발굴·추진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제 발전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민간 전문가 컨설팅도 5차례 실시한 바 있다.

고정화/기자

경기도주식회사-군포 지역커뮤니티 ‘배달특급 활성화’ MOU

경기도주식회사-산사모-한국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4자 협약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달 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작하는 군포시 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 손을 잡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8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군포시 탐카페 산사모(군포산본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한국외식업중앙회(군포시지부), 소상공인연합회(군포시지회)와 배달특급 홍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 기관 및 단체는 배달특급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먼저 배달특급 가맹점과 소비자

모집을 위해 각 사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회원 및 제휴사를 대상으로 신규 가맹점과 소비자 홍보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인구 27만 명 규모의 군포는 이달 29일 배달특급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500여 개가 넘는 곳이 배달특급에 입점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배달특급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없어서는 안 될 앱”이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찾아주시는 만큼 군포에서도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용기 산사모 대표는 “좋은 취지에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회원수 16만6,000명에 달하는 대표

지역커뮤니티로서 배달특급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하 한국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군포시지회 회장은 “회원사들을 통해 가맹점 입점을 적극 장려하고,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해 홍보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이날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해 배달특급을 활용한 지역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원은 “배달특급은 군포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배달특급이 빠르게 군포에 정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하반기 충북도정,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제회복 총력

충북도 이시종 지사는 7월 8일, 제 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승우 행정부지사 대독)를 통해 하반기 도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

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정부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대안 반영과 중부고속도로 서정주-증평 구간 확장사업의 최종 확정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협조해 준 관계자와 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밝힌 하반기 주요 도정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①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정역량 집중, ② 강화추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본격 추진, ③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박차, ④ 청주권과 비청주권, 도시와 농촌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 실현 위해

도내 균형발전 적극 추진, 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삶을 재충전 하는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 청년·여성성이 행복한 충북 건설, ⑦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깨끗한 환경 조성

한편 이시종 도지사는 “앞으로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도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인 강화추과 수도권 일국화에 대응한 충청권 메가시티, 2027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그리고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관악구, KT·KB금융그룹 민간기업의 IT기술n투자 지원 ‘관악S밸리 스타트업센터’ 벤처 창업의 메카로

관악구가 기업·대학·지역이 상생을 이루며 벤처·창업을 선도하는 혁신경제로 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구는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기업’,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 인프라 시설과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지자체’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KT 및 KB금융그룹 민간 기업과 연계한 창업공간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비롯해 구현보 KT 대표이사, 허인 KB국민은행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정태호 국회의원, 권철승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벤처·창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관악S밸리’의 변화와 성장을 축하해주었다.

호암로 597(삼성동)에 위치한 ‘관악S밸리 스타트업센터’는 KT와 KB금융그룹이 관악S밸리를 스타트업 육성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DIGICO KT OPEN LAB’과 ‘KB Innovation HUB’를 한데 모아 조성한 창업공간으로 7개 총 490평 규모로 3개 기업이 시설을 공동 운영한다.

지상 2~4층은 ‘DIGICO KT OPEN LAB’, 지상 5~6층은 ‘KB Innovation HUB’, 지하 1층~지상 1층은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인 ‘마이워크스페이스’가 자리한다.

이곳은 입주공간 17개실을 비롯하여 회의실, 네트워크 공간은 물론 미디어스튜디오, 클라우드 마이크로스페이스 등 스타트업이 입주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2022년 5월 개통예정인 신림선과 도보 1분 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DIGICO KT OPEN LAB’에는 지난 4월 ‘미래 성장기업 발굴 DIGICO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기업을 포함해 7개 기업이 1기로 입주하여 AI·5G 테스트베드 및 클라우드 오픈랩 등 KT가 보유한 IT기술과 창업 인프라, 다양한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 사업연계를 통한 서비스 출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B Innovation HUB’에도 공모를 통해 선발한 7개 기업이 입주하여 KB금융그룹 내 전문가를 활용한 경영컨설팅, 사업연계 및 스케일업 투자지원 등 스타트업의 각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선7기 관악구는 ‘청년’과 ‘서울대’라는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낙성벤처밸리’와 ‘신림창업밸리’를 양대 축으로 하는 ‘관악S밸리’ 사업을 통해 3년 만에 창업의 불모지였던 관악에 11개소의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성과를 낳았다.

향후 구는 내년까지 총 16개의 공간을 구축하는 한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통한 세제혜택, 지구단위재정비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벤처창업도시의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함에 있어 KT와 KB금융그룹이 가진 역량이 합쳐짐으로써 앞으로 관악S밸리 사업 추진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악구가 기술창업을 선도하는 벤처창업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위한 공간, 기술, 투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이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국비 237억 원 확보

이천시는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체결은 지난 1년간 이천시 농업정책과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전국 12개 시군중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협약체결을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협약 대상지는 이천시 남부생활권(장호원읍, 설성면, 울탄)으로 생활 SOC 확충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공급·전달을 강화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권이라는 공간 전반에 투자하는 지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협약에 포함된 사업의 실행을 위해 국비 237억 원을 지원하고 협약사업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조정 등의 역할을 이행하며, 이천시에서는 시비 118억 원을 투입하는 등 2025년까지 총 3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세부계획 수립, 농촌지역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 농촌협약으로 낙후된 남부권을 성장시켜 균형발전 및 농촌의 경제 활력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경상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반기 중앙공모 3곳 선정 쾌거!

경상남도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상반기 공모에 지난 4월에 선정된 진주시의 ‘인사동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조성사업’에 이어 창원시의 ‘니랑내강 다가치센터 조성사업’과 창녕군의 ‘창녕군 청년센터 조성사업’이 추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반기 공모의 선정규모는 전국 13곳 [총사업비 2,065억원(국비690억 포함)]으로, 이번 공모에서 경남도는 창원시, 창녕군 인정사업 2곳이 선정되어 국비 7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2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창원시 경화동의 ‘니랑내강 다가치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84억 원(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24억)으로 연면적 1,676㎡, 4층 규모로 북카페, 돌봄센터, 문화교실, 건강·운동시설 등을 포함한 니랑내강 다가치센터를 조성한다.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수요를 조사하여 돌봄센터와 문화교실 등 부족한 생활 사각간접자본(SOC) 시설을 반영했다.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창녕군 창녕읍의 ‘창녕군 청년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8억 원(국비 29억, 도비 6억, 군비 13억)으로 연면적 1,267㎡, 4층 규모로 청년인재육성 및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센터를 조성한다.

경남도의 청년특별 정책에 맞게 지역 맞춤형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과 청년 간 취업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 청년의 정착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4월 선정된 진주시의 ‘인사동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조성사업’은 27년간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던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의 (구)영남백화점을 철거한 후 다목적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선정으로 지역 주민의 화합과 청년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및 국비확보를 위하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공모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실적 광역시도별 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받아 광역 자체 선정을 위한 국비를 440억 원 확보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자체 선정결과를 경남도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오는 9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최광용/기자

충청남도, ‘서해 특산종’ 어린 꽃게 60만 마리 방류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8~9일 이틀간 도내 6개 시군 해역에 어린 꽃게 종자 6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서해안 특산종 꽃게 자원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였다.

꽃게는 지난 5월부터 어미꽃게 관리로 통해 부화한 유생을 갑각 1cm 내외로 성장시킨 것으로, 내년 봄이면 상품 가치 있는 크기로 성장하게 된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어린 꽃게 방류로 최근 불법조업 및 남획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꽃게 수확량 변동이 큰 상황에서 서해안 꽃게 자원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제성 품종에 대한 지속적인 방류와 연구로 도내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티빙 '골신강림', 강호동-신동엽 퍼팅 연습 현장 공개



강호동과 신동엽의 열정 넘치는 퍼팅 모습이 최초 공개됐다.

오는 8월 공개될 티빙 새 오리지널 예능 '골신강림'(기획·제작 jtbc스튜디오, 스튜디오 룰루랄라, 미스틱스토리)은 자타공인 연예계 골프 최강자 강호동과 신동엽이 라이벌 골프친구에서 운명공동체가 되어 골프 레전드들과 펼치는 치열한 대결을 다루는 프로그램.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호동과 신동엽의 골프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필드 위에서 스윙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특히 강호동은 스윙을 하며 속살까지 보이는 열정을 드러내고 있어 평소 엄청난 에너지로 예능계를 쥐락펴락하는 그가 골프계를 또 어떻게 장악할지 관심이 쏠린다.

신동엽 역시 온 얼굴에 힘을 모아 오직 퍼팅에 집중하고 있어 골프 실력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무엇보다 '골신강림'을 통해 미디어 스튜디오를 벗어나 야외 MC에 도전, 스튜디오 전문MC로 볼리던 그가 야외에서는 어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이처럼 퍼팅 연습만으로도 이미 '나이스 샷'을 외치게 만드는 두 사람이 '골신강림'에서 선보일 활약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때문에 두 사람이 도전장을 던진 첫 번째 게스트가 누구일지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강호동, 신동엽이 필드 위에서 보여줄 재미와 골프계 정복 도전기가 그려질 티빙 오리지널 '골신강림'은 오는 8월 티빙에서 공개된다.

전순희기자

영화 '싱크홀' 치열한 생존본능 담은 2차 포스터 전격 공개!

초대형 싱크홀 속 차승원 X 김성균 X 이광수 X 김혜준 포착!

8월 11일 개봉을 앞둔 재난 버스터 '싱크홀'이 사상초유의 지하 500m 싱크홀 속에 빠진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김혜준의 긴박감 넘치는 모습을 담은 2차 포스터를 전격 공개했다.

지금까지 재난 영화에서 보지 못한 색다른 상상력과 유쾌한 케미로 울여름 극장가에 활기를 더할 '싱크홀'이 2차 포스터를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싱크홀은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 지하 500m 초대형 싱크홀로 추락하며 벌어지는 재난 버스터. 이번에 공개된 2차 포스터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싱크홀 속으로 빠져버린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김혜준의 급박한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로프를 자신의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차승원의 모습과 "가자 올라가보자!"라는 카피는 청운빌라의 프로 참견러 '만수'(차승원)의 치열한 생존본능과 그가 앞으로 펼칠 활약을 기대케 한다.

또한, 11년 만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으나 이제는 무너져버린 집에서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김성균

의 모습은 예고도 없이 발생한 싱크홀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 여기에,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라는 카피는 아내와 아들에게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생계형 가장 '동원'(김성균)의 강인한 의지를 전해 공감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개된 2차 포스터에는 직장 상사 '동원'(김성균)의 집들이에 왔다 예기치 못한 싱크홀 재난에 함께 휘말린 '김대리'(이광수)와 인턴 사원 '은주'(김혜준)의 모습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과장님 댁에서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라는 카피 아래 추락하기 직전 기동을 부여잡고 있는 잔내폭발 회사원 '김대리'(이광수)와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포스터 속 카피처럼 모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3개월 차 열정 인턴 '은주'(김혜준)의 모습은 일촉즉발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유쾌한 시너지를 발휘할 인물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기발한 상상력과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김혜준이 선보일 유쾌한 케미스트리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싱크홀은 8월 11일 개봉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영화 '오필리아' 한 쪽의 그림같은 명화 포스터 공개!

세익스피어 '햄릿'을 재해석한 영화 '오필리아'가 한 쪽의 그림 같은 미장센으로 시선을 휘어잡는 명화 포스터를 공개했다.

7월 14일 개봉을 앞둔 '오필리아'가 존 에버렛 밀레이 '오필리아'를 오마주한 명화 포스터를 공개했다.

'오필리아'는 타고난 현명함으로 왕비의 총애를 받아 왕실의 시녀가 된 오필리아가 햄릿 왕자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면서 왕국을 둘러싼 음모에 맞서는 로맨스 시대극으로 끊임없이 리메이크 되고 있는 세익스피어의 불후의 명작 [햄릿]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햄릿이 아닌 비운의 조연이었던 오필리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공개된 '오필리아' 명화 포스터는 마치 존 에버렛 밀레이의 작품을 보는 듯한 감상을 불러온다. 명화 포스터는 오필리아가 극중 꽃말을 이용해 속마음을 내비치는 장면에서 등장했던 로즈마리, 팬지꽃, 데이지 등의 꽃으로 장식하여 의미를 더한다.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필리아'는 세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작품으로, 자연을 사랑해 이를 그림에 담고자 했던 라파엘 전파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 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원작에서는 오필리아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유명하지만, 명화 포스터에는 "그대도 언젠가는 당신만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라는 희망에 부풀 영화 속 대사가 더해져 영화 '오필리아'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줄지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스타워즈' 시리즈로 스타덤에 오른 데이지 리들리를 비롯하여, 유수 영화제를 휩쓸었던 '1917'의 주인공 조지 맥케이가 '오필리아'의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은다. 두 사람은 각각 오필리아와 햄릿 역을 맡아 운명적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대세 신예들과 더불어 베테랑 연기파 배우들도 조연진으로 합세했다. '21그램', '임파서블'로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른 나옴이 왓츠, 영화 '클로저'로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 아카데미 시상식은 물론 전 세계 유수 영화제의 후보로 오른 클라이브 윌슨, '해리포터' 시리즈의 '말포이'로 유명한 톰 펠튼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며 7월 가장 기대되는 세익스피어 유니버스의 등장을 예고한다.

세익스피어의 '햄릿'의 스핀오프 격 이야기 '오필리아'는 7월 14일 개봉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간동거' 이해리, 장기용 비밀 알았다! 파격 동거 선언 엔딩 '짜릿'

tvN '간 떨어지는 동거' 이해리가 구미호 장기용이 인간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가운데, 엔딩에서 장기용과의 동거 재돌입을 선언해 짜릿한 설렘을 터뜨렸다.

'간 떨어지는 동거' 13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3.9%, 최고 4.5%, 전국 가구 기준 평균 3.2%, 최고 3.7%를 기록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2.4%, 최고 2.6%, 전국 평균 2.2%, 최고 2.5%로 케이블과 종편을 포함한 동 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닐슨코리아 제공)

지난 7일(수) 방송된 tvN '간 떨어지는 동거'(이하 '간동거')(연출 남성우/극본 백선우, 최보림/제작 스튜디오드래곤, JTBC스튜디오) 13회에서는 이담(이혜리 분)이 신우여(장기용 분)의 '여우 구슬'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가 하면 양혜선(강한나 분)과 도재진(김도완 분)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쇼윈도 커플에서 진짜 커플로 발전해 설렘을 자극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우여가 서교수(손성윤 분)를 통해 무리하게 정기를 흡수하려 한 이유가 드러났다. 우여의 여우 구슬이 어느새 절반이나 푸르게 물들어 있던 것이다.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슬을 찾아온 희망, 답이와의 평범한 일상을 꾸꾸기 시작한 우여는 답이의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마지막 희망을 잡으려,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의 정기를 흡수했던 것이다. 이렇듯 우여에게 답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실연의 상처로 힘겨워하던 답이는 혜선을 통해 우여의 상황을 모두 알게 됐다. 곧장 우여를 찾아 나 답이는 구슬을 품어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우여는 자신보다 답이의 안전이 1순위인 상황. 이후 구슬을 넘겨받기 위해 답이도 때때로 없이 입맞춤을 시도하는 모습도 그런 답이를 괴하는 우여의 추격전에 발발해 웃음을 자아냈다. 급기야 답이는 "여우를 상대하려면 너도 여우가 되어야 한다"는 혜선의 조언에 따라 '밀당 작전'을 펼치기에 이르렀다. 답이는 우여에게 이별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뒤 일부러 재진과 다정한 척 연기했다. 이로 인해 우여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만 답이를 다치지 않게 하려는 우여의 마음은 완강했다.

한편 '밀당 작전'은 혜선과 재진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재진은 정기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고 있는 우여와



혜선을 보고, 혜선이 우여를 좋아한다고 오해했다. 이에 재진은 답이의 '밀당 작전'에 가세했지만 이도 잠시 혜선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접기로 한다. 상황을 알리 없는 혜선은 갑자기 거리를 두는 재진이 신경 쓰이고, 결국 재진에게 쇼윈도 커플을 관두자며 차갑게 돌아섰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재진 앞에 다시 돌아온 혜선은 '어째서 붙잡지 않냐'며 서운함을 폭발 시켰고, 이에 재진은 "좋아해, 혜선아. 좋아해"라며 진실된 사랑 고백으로 설렘을 자극했다. 혜선 또한 재진의 고백에 화답하며 두 사람은 '진짜 커플'이 됐다. 특히 재진의 꾸밈없고 순수한 고백이 보는 이들의 입가에 미소를 자아내며 진짜 연애를 시작한 혜선-재진 커플을 응원하게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답이 앞에 돌연 산신(고경표 분)이 나타나 흥미를 고조시켰다. 산신은 답이에게 여우 구슬을 푸르게 물들이는 것은 인간의 정기가 아닌 '인간성'이라는 사실을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그동안 산신은 우여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스스로 깨닫는 이후 인간이 되길 바랐고, 답이와 계산수(배인혁 분)

을 붉은 실로 엮은 이유 역시 우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어 인간의 감정을 일깨우려 했던 것이다.

이에 극 말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답이가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우여의 집으로 들어닥쳐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욱이 답이는 "우리 동거해요. 내가 어른인 인간 쯤 만들어 드려려고요"라며 우여와의 동거 재개를 선언해 안방극장에 짜릿함을 자아냈다. 과연 답이의 도움으로 우여가 999년의 기다림 끝에 인간이 될 수 있을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 방송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오늘 울리고 웃기고 최고였다", "초반 우여 내레이션 너무 슬펐음", "답이가 우여 인간 만들었구나! 직진 답이라면 믿음 200%", "재진이 너무 귀엽다. 오늘 고백 재진이다워서 더 좋았음", "드디어 혜선이랑 재진이 커플 성사됐다. 이제 답이가 우여 인간 만들고 모두 꽃집 건자", "답이 엔딩에서 멋짐 폭발", "우리 드라마 캐릭터 다 너무 사랑스럽다고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tvN '간 떨어지는 동거'는 매주 수목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현유주기자

'한국 RnB 솔로의 진수' 존박, 9년 만에 미니앨범 'outbox' 발매!



한국 R&B 솔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가수 존박이 9년 만에 발매하는 미니앨범 'outbox'의 발매와 동시에 멜론 스테이션에 출격한다.

8일 멜론에 따르면 존박은 새 미니앨범 'outbox'가 발매되는 오는 12일 오후 6시에 멜론 스테이션 프로그램 '오늘음악'에 출연해 지난 5월 발매한 디지털싱글 'Daydreamer' 이후 2개월 만에 이뤄진 초고속 컴백 비하인드 스토리와 9년 만에 발매하는 두 번째 미니앨범 'outbox'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이번 '오늘음악'에서는 새 앨범 토크 외에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1 존박 상반기결산' 코너와 그의 진짜 MBT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존박 MBTI 파헤치기' 코너 등을 준비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1 존박 상반기결산' 코너에서는 매달 존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며 2021년 상반기를 정리해 볼 예정이다.

이어 '존박 MBTI 파헤치기'에서는 팬들이 예상하는 존박의 MBTI와 실제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자신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12일 오후 6시 존박은 지난 2012년 발매한 첫 미니앨범 'Knock' 이후 9년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

'outbox'를 발표한다. 앞서 '네 생각', 'Falling', '이게 아닌데', '철부지' 등 다수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존박은 지난 5일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미니 2집 발매를 공식화했다.

한편 뮤직토크쇼 '오늘음악'은 K-POP을 대표하는 아이돌부터 실력과 싱어송라이터까지 다양한 뮤지션이 직접 DJ가 되어 진행하는 멜론스테이션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아티스트의 일상을 소개하는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여 멜론 고객들에게 풍성한 오디오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멜론 스테이션에서는 '오늘음악' 외에도 빅히트뮤직 전용 프로그램 'BIGHT MUSIC RECORD', SM 전용 프로그램 'SMing', 래퍼 이영지가 대표 국립 뮤지션들과 함께 하는 '힙플라디오', 뮤지션 나열과 에코브릿지가 함께 진행하는 '디깅 온 에어', DJ 뽀로로가 인기 동요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뽀로로의 '뽀로로를 높여요', 팝에 대한 모든 것 '팝 게스트', 박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영화&박선영입니다', 가장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바리톤 정경의 브라보 클래식', 정기호의 'SOULBY SEL', '이달의 루키'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최만식기자

도쿄 올림픽,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개최

도쿄올림픽 개막이 2주 남은 가운데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관객 없이 대회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9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저녁 올림픽 관련 5자 회의를 열고 도쿄도와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등 1도 3현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무관중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린 125년 역사상 처음이다. 도쿄올림픽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 역대 최초로 1년 연기되기도 했다. 도쿄는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올림픽이 취소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인류의 노력과 뛰어난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도쿄에서 알려주고 싶다"고 개최 의의를 강조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관중 개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쿠시마와 미야기 등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는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소프트볼과 야구 경기를 개최하는 후쿠시마는 7150명의 관중을 허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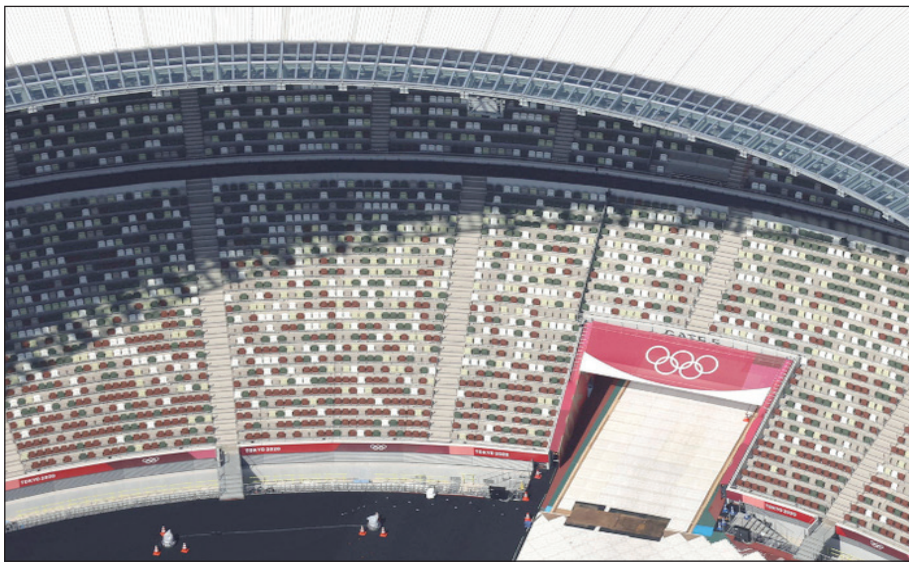
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등의 관계자는 관중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에 입장할 수 있다고 무도 도시로 조직위 사무총장이 말했다.

NHK는 최대 1만 명의 관중 허용을 기준으로 기대했던 입장권 판매 수익이 900억엔(약 9423억원)이었지만, 무관중 결정으로 재정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쿄 도민과 일본 국민이 세금 부담 증가를 이해해 줄 수 있는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 지역에 4번째 긴급사태 선언을 결정했다. 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다. 도쿄올림픽 기간(7월 23일~8월 8일) 전체가 포함된다.

도쿄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크게 늘고 있다. 6월 둘째주 400명대에서 6월 말 600명 안팎으로 늘었고, 7월 초 700명대에 이어 7월 920명과 8월 896명 등 일주일에 100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 중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일본을 찾으면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광수/기자

NC, 한화 선수단 원정 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8일 잠실.대전 경기 취소

8일 개최 예정이었던 잠실 NC-두산, 대전 KIA-한화 경기가 취소됐다.

NC와 한화 선수단의 원정 숙소에서 8일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해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KBO는 역학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경기장 내 안전 및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해당 경기를 개최하지 않

기로 결정했으며 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7일 해당 숙소를 이용한 NC 선수단과 2~5일 같은 숙소를 사용한 한화 선수단 전체를 대상으로 PCR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취소된 경기는 추후에 재편성된다.

전순희/기자



[KPGA 2021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8차전] 문정민, 생애 첫 우승 거둬!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무안 컨트리클럽(파72/6,565야드)의 서A(OUT), 서B(IN) 코스에서 열린 'KPGA 2021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8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천8백만 원)'에서 문정민(19)이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3라운드 54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계획됐던 본 대회는 기상악화로 인해 1개 라운드가 취소되면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우승자를 가리게 됐다. 첫날 4언더파 68타를 기록하며 공동 2위에 자리했던 문정민은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최종합계 9언더파 135타(68-67)를 기록해 짜릿한 역전 우승을 만들어냈다.

이번 우승을 통해 상금 2천만 원을 돌파하며 상금순위 82위에서 10위로 수직상승한 문정민은 우승 소감으로 "첫날 선두와 타수 차이가 있었기에, 우승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 오늘 오직 내 플레이에만 집중했더니 우승이 찾아와 정말 놀랐다. 이

번 우승이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물인 것 같아 스스로가 대견하고, 앞으로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정민은 "먼저 뒷바라지해 주시면서 함께 첫 우승을 기다리신 부모님과 이모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회를 안전하게 개최해 주신 무안 컨트리클럽과 ㈜한성에프아이 올포유 그리고 KPGA에도 감사드리며, 나를 믿고 후원해주시는 타이틀리스트와 후원사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따뜻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문정민은 "오늘 퍼트도 잘 따라줬지만, 특히 아이언 샷이 잘 되면서 편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올 시즌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면서 준비했기에, 나 자신을 믿고 플레이했던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라며 우승 요인을 꼽았다.

어릴 적 쇼트트랙 선수로 꿈꿨던 문정민은 부모님의 권유로 초등학교 5학년에 처음 골프채를 잡았다. 공

이 날아가는 것이 재밌어서 본격적으로 골프 선수를 준비한 문정민은 이후 중학교 시절에 무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28회 그린배 전국 중등학교 골프대회'에서 2위에 오르는 등 골프 커리어를 탄탄히 쌓아갔다.

'KPGA 2019 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 대회에서 중·고·대학부 통합 5위 이내 들며 준회원 실기테스트 면제권을 받았던 문정민은 지난 4월 'KPGA 2021 XGOLF·백제CC 점프투어' 1~4차전 성적을 바탕으로 정회원으로 승격했다. 5월부터 드림투어에 진입한 문정민은 몇 개 차전을 가지면서 적응 기간을 가진 후, 결국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쟁취했다.

이번 시즌 목표에 대해 묻자 문정민은 "올해 드림투어에서 2승을 더 추가해서 드림투어 상금왕 자격으로 다음 시즌 정규투어에 입성하고 싶다.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은 최대한 피하고 싶다."라고 웃으며 인터뷰를 마쳤다.

문정민에 이어 공동 2위에는 첫날 선두였던 조은혜(24,미코엠씨스퀘어)를 비롯해 윤이나(18,하이진로)와 양채린(26,교촌F&B)이 최종합계 8언더파 136타를 기록하며 자리했고, 현재 드림투어 상금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권서연(20,우리금융그룹)은 5언더파 139타(70-69)를 쳐 공동 11위에 올랐다.

무안 컨트리클럽과 ㈜한성에프아이 올포유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K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최종라운드는 주관 방송사인 SBS골프를 통해 7월 19일(월) 19시부터 녹화중계된다.

전순희/기자

순창군,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대표 순창군선수단 격려

지난 7일 이남섭 순창부군수와 양영수 체육회장 공설운동장 방문



순창군 이남섭 부군수가 지난 7일 순창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과 감독, 코치 등을 격려했다. 이날 순창군체육회 양영수 회장도 함께해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번 자리는 선수단과 코치단 격려를 위한 마련한 자리로, 격려금 전달과 출전식을 진행했다.

금년에 출전하는 선수단은 육상 8명(순창중앙초 2명, 순창북중 6명), 역도 4명(순창북중), 소프트테니스 52명(순창중앙초 18명, 순창초 15명, 순창중 12명, 순창여중 7명) 3개 종목에 64명이 참가해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소년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해 종목별 경연대회로 지난 5월 배구 종목을 시작으로 각종종목별 전국 각지에서 오는 11월 까지 열린다.

순창을 대표하는 스포츠인 소프트테니스는 오는 28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안성 국제정구장에서 열린다. 육상은 오는 24일 경

북 구미시민운동장, 역도는 오는 23일 강원 양구 용하체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이날 참석하신 이남섭 순창부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종 대회 취소 등으로 출전 기회 부족으로 안타까웠다"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되며 전북 대표로 출전하는 우리군 선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부상 등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양영수 체육회장 "전라북도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만큼 그동안 힘들게 훈련해 온 선수단 여러분의 실력을 100% 발휘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선수단과 코치단은 부상없이 각자의 최선의 실력을 내것을 다짐하며 출전식을 마무리했다.

이순수/기자

'여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포토콜 진행... '남자골프의 성공을 지을 것'

'여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원)'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회장인 경남 창원에 위치한 아라미르골프 앤 리조트(파71, 7,206야드)에서 포토콜이 진행됐다.

이날 포토콜에는 본 대회 '디펜딩 챔피언' 이지훈(35,셀러비), 2019년 '초대 챔피언' 이재경(22,CJ온스타일), 제네시스 포인트 및 제네시스 상금순위 1위 김주형(19,CJ대한통운), 2021 시즌 KPGA 코리아투어 우승자 문경준(39,NH농협은행)과 허인회(34,BONANZA)를 포함해 대회 주최사인 여성종합건설 소속 선수 최민철(33), 엄재웅(31), 강태영(23)까지 총 8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우천으로 인해 클럽하우스 내부에서 진행된 포토콜에서 선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방역 수칙 및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포토콜이 끝난 후 최민철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여성종합건설 임직원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선수들 모두 최고의 플레이로 대한민국 남자골프의 성공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 시즌 KPGA 코리아투어의 여덟 번째 대회로 열리는 '여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은 2019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3 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에는 시즌 개막전으로 펼쳐지기도 했다.

'여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은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대회로 열리며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JTBC골프와 JTBC골프 앤 스포츠, 최종라운드는 JTBC와 JTBC골프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현유주/기자

'울주군청 손광복' 생애 첫 태백장사 등극!

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계약 2021 민속씨름 울주장사씨름대회' 태백장사(80kg이하) 결정전(5전3선승제)에서 손광복(울주군청)이 노범수(울주군청)를 3-1로 제압하며 정상에 올랐다.

울산 출신이며 울산강남고, 울산대를 거쳐 2018년 울주군청의 전신인 울산동구청에 입단한 손광복은 태백급 각자인 노범수를 꺾으며 데뷔 4년 만에 생애 첫 태백장사에 등극했다. 고향이자 활동중인 울산에서 창단 첫째 해에 장사에 등극해 더욱 뜻 깊은 우승이었다.

손광복의 태백장사 등극을 예견한 이는 많지 않았다. 8강에 오른 선수들 중 6명이 장사 출신이었고 또 손광복은 최고 성적이 4위였기 때문이다.

과란의 시작은 8강전부터였다. 지역개최 시드를 배정받아 8강에 안착

한 손광복은 8강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김성용(제주특별자치도청)을 꺾었고 4강에서는 베테랑 유환철(용인시청)을 만나 또 한 번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같은 팀 후배이자 룸메이트인 노범수를 만났다.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온 손광복 이기에 모두가 작년에 데뷔해 벌써 태백장사5회, 금강장사 1회를 차지한 파죽지세의 노범수가 손쉽게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봤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먼저 리드를 잡은 건 노범수였다. 노범수가 '안다리'로 손광복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손광복이 두 번째 판 기습적인 뿌려치기로 동점을 만든데 이어 세 번째 판에서 '오금당기기'를 성공시키며 2-1로 역전했고, 네 번째 판 역시 기세가 오른 손광복이 노범수의 들배지기를 되치며 경기시작 3초만



에 승리해 최종스코어 3-1로 경기를 마무리 했다.

- ▶'위더스계약 2021 민속씨름 울주장사씨름대회' 태백급(80kg이하) 경기결과와 태백장사 손광복(울주군청)
- 2위 노범수(울주군청)
- 3위 박정우(의성군청)
- 4위 유환철(용인시청)
- 5위 이준호(영월군청)
- 6위 오홍민(부산갈매기)
- 7위 허선행(영암군민속씨름단)
- 8위 김성용(제주특별자치도청)

김기현/기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도쿄올림픽 출전 충북(소속)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윤현우 충청북도체육회장과 함께 7일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7월 23일부터 열리는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충북 소속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이시종 지사와 윤현우 회장은 국가대표로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선수단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와 윤 회장은 충북도 출전선수단을 만나 일일이 손을 맞잡아 격려하고, 격려금도 전달하는 한편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현장 이야기와 출전 포부를 청취하기도 했다.

한편, '제32회 도쿄하계올림픽'은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17일간 200개국 1만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선수와 임원 34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충북도(소속 및 출신)는 7개 종목에 21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한 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는 충북도 선수 중 금메달 후보로는 지난 31회 브라질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궁의 김우진(청주시청)선수가 출전하고, 한국 여자유도의 희망 한미진(충북도청), 체조의 신재환(제천시청)등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선수단 대표 양궁의 홍승진 감독(청주

시청)는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에서는 흥성전이 추가돼 한국 양궁 최초 남녀 3관왕 탄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 종목 석권을 목표로 선수들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다른 종목도 나라와 충북을 대표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여러분이 바로 가슴 벅찬 현장의 주역임을 잊지 말고 한국과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로서 책임과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면서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 긴장하지 말고 그동안 갖고있는 실력을 발휘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9일(금) 견본주택 개관

▲ 2개 블록 총 390세대 중 216세대 7월 분양예정...현대건설 브랜드 단지

- 아파트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 지상 1~3층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대구역 퍼스트'

▲ 태평로 일대 약 1만5,000세대 신규 단지 들어서며 신혼주거타운 탈바꿈

- 신규 단지 중 약 8,400세대가 힐스테이트 단지... 브랜드 타운 형성 전망

- 2020 아파트 브랜드 파워 설문조사 1위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 기대

▲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3호선 달성공원역 도보권... 대구권 광역철도 호재

- 1호선 대구역과 3호선 달성공원역 도보 이용 가능, 1·2호선 환승역 반월당역 두 정거장에 도달

- 대구역 통과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2023년 개통 예정... 광역 생활권 누릴 수 있어

▲ 생활·문화·의료·행정 등 인프라 밀집... 공원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

- 롯데백화점, 칠성이마트, 대구북합스포츠타운,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생활 인프라 완비

- 단지 가까이 수창공원, 달성공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 누릴 수 있어

▲ 특별공급 : 7월 19일(월), 1순위 당해 : 20일(화), 1순위 기타 : 21일(수) 청약 접수

현대건설은 9일(금)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가 일원에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대구의 떠오르는 신혼주거타운 태평로 일대에 들어서 미래가치가 뛰어난 데다 인근으로 교통부터 교육, 편의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는 총 2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이중 먼저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는 지하 5층~지상 41층, 아파트 전용면적 84㎡ 총 216세대,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대구역 퍼스트'로 조성된다. 지상 1~3층은 힐스 에비뉴로, 4층은 주민공동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별로 살펴보면 △84㎡ A 72세대 △84㎡B 72세대 △84㎡C 72세대이며, 전 세대 모두 선호도 높은 84㎡ 단일 평형으로 이뤄진다.

▲ 태평로 일대 약 1만5,000세대 신혼주거타운 조성... '힐스테이트' 브랜드 프리미엄 기대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가 들어서는 중구 태평로 일대는 신규 아파트들이 대거 공급되며 신혼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현재 태평로 일대에는 약 1만5,000세대의 신규 단지가 분양했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중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는 사업지 맞은 편에 분양 예정인 2차 단지를 포함해 약 8,400세대로,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브랜드는 부동산 리서

치회사 닥터아파트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아파트 브랜드 파워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인지도, 선호도, 브랜드 가치, 구매 희망 브랜드 등 4개 부문 응답률을 합친 종합순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도 2019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27개월 연속으로 '힐스테이트'가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3호선 달성공원역 도보권 위치... 대구권 광역철도 수혜 예정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는 대구 중심 입지인 대구역 일대에 들어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우선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과 3호선 달성공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노선 모두 대구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대구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광역 교통망 호재도 예정돼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구역에 대구권 광역철도가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경부선을 이용해 구미~칠곡~대구~경산간 61.85km를 전철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개통 시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단지는 도로교통망도 우수하다. 칠산로, 태평로, 선천대로, 국제보상로 등 주요 도로가 가까워 차량을 통해 대구 도심 내·외곽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 단지 인근 생활·문화·의료·행정 등 인프라 풍부... 공원 인접 쾌적한 주거환경 누릴 수 있어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는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이마트 칠성점, 서문시장 등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구 최대 중심상권으로 꼽히는 동성로가 인접해 CGV, 롯데시네마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경북대병원, 동산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북합스포츠타운, 대구 오페라하우스 등이 인근에 있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중구청 등 행정기관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수창공원, 달성공원, 경상감영공원 등 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 견본주택 사전 방문예약제 실시... 오는 7월 20일(화) 1순위 청약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견본주

택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견본주택 방문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견본주택 방문 시 동반 1인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마스크 미착용, 체온 측정 시 37.3도 이상이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청약일정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오는 7월 1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화) 1순위 당해, 21일(수) 1순위 기타, 22일(목)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점자는 29일(목)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8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는 대구의 주거중심지로 부상 중인 태평로 일대에 들어서 다양한 입지적 장점들을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앞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인근 단지들의 기세를 이어 이번에도 높은 인기가 기대된다"며 "특히 인근에 자리하게 될 다수의 힐스테이트 단지들과 함께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면서 향후 높은 가치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의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 32번지에 위치해 있다.

〈분양 문의 : 053-428-1688〉

박육석/대기자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